

<<서양고전강독 4>>

제 1 강 「위험사회」 강의 순서 및 소개

◆ 강의 순서 및 소개

강	내용
1 강	「위험사회」 강의 순서 및 소개
2 강	제 1 부 위험사회의 윤곽 1 장 분배논리와 위험의 분배 논리 2 장 위험사회와 지식의 정치
3 강	제 2 부 사회적 불평등의 개인주의화: 생활형태들과 전통의 사망 3 장 지위와 계급을 넘어서 4 장 나는 나: 가족 내부 및 외부의 성별화된 공간과 갈등 5 장 개인주의화, 제도화, 그리고 표준화: 생활 상황과 생애의 유형 6 장 노동의 탈표준화
4 강	제 3 부 성찰적 근대화: 과학과 정치의 일반화 7 장 진리와 계몽을 넘어서 과학? 8 장 정치적인 것의 개막

◆ 「위험사회」를 읽기 전에

저자 소개 :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

통제불능성, 무지와 불확실성의 문제 등을 탐구한 독일의 사회학자로서 위험사회, 2차 근대화(성찰적 근대화) 등의 단어를 만들었다. 환경파괴, 금융 붕괴, 지구온난화, 민주주의와 국가조직의 위기와 같은 급진적 지구적 변화에 직면하여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사고와 행동이 새로운 근대성의 관점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나를 탐구하였다. 또한 근대성, 환경문제, 산업화, 세계화(특히 세계자본주의와 세계정부)에도 관심이 높다.

◆ 읽기 전, 알면 도움이 되는 철학 계보

1. 비유럽철학

동아시아철학(중국, 일본, 한국), 중동이슬람철학, 인도철학 등

2. 유럽철학: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16-17세기 과학혁명기와 18세기 뉴턴과학의 영향을 모두 받아, 유럽철학은 중세의 어둠을 이성의 햇불로 개혁했다고 믿는 계몽주의의 전통을 가진다. 이후 계몽주의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부르짖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철학은 과학적 합리성과 인간 역사의 발전에 관한 논의를 모두 공유한다. 다시 크게 영미철학과 대륙철학으로 나뉜다.

1) 영미철학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철학

-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같은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관찰로부터 인간 지식의 확고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라고 믿음

- 경험주의 철학이라고도 함
- 아리스토텔레스, 프란시스 베이컨 등이 대표자
- 20 세기 초중반에는 경험주의가 세분화되어 논리경험주의(혹은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 짐
- 경험주의는 현대 실험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실험 과학의 사상적 어머니
- 영미철학에서 인간은 사회적 집합체라기보다 개인이라는 개별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그 개인이 그를 둘러싼 주변 세계와 우주에 대한 (시각적) 관찰을 문장들로 만들면 참/거짓의 이분법에 근거한 논리적 장치를 써서 이런 문장들을 분석하기를 좋아함

2) 대륙철학 : 현대 프랑스와 독일의 철학

- 경험주의와는 대비되는 관념론의 전통이 강함
- 관념론은 경험을 초월하는 이상과 관념 세계에 대한 이해가 철학의 목표라고 믿으므로 따라서 자연의 관찰보다는 삶 신념 윤리 정치 사회와 관련되는 문제에 관심이 훨씬 더 높음
- 특히 독일 철학에서는 헤겔의 관념론이 큰 영향을 미침
- 헤겔은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즉 모순) 사이의 갈등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 맑스는 이런 모순 갈등 중에서도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모순적 갈등에 큰 관심을 보임. 그는 이 갈등을 계급투쟁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자본주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봄
→ 이런 전통을 다시 이어받은 독일의 사회철학을 비판이론이라고 함
- 비판이론은 1930년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었기에 비판이론가들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부름

3. 프랑크푸르트 학파 :

1) 시작 : 대륙철학의 전통 내에서 성장한 독일 사회철학의 분파

20 세기 초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시대에는 자본주의자, 파시스트(인종적 계급적 극우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혼재했다. 그러나 당시 어디에도 속하지 않던 이단적 지식인과 정치적 비당파주의자들이 모여 혼란스러웠던 사회 경제체계를 설명하려 했던 모임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시작되었으며 당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이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2) 발전 :

- 이들은 산업 자본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사회조직내에서 철학적 유연성이 없는 체제로 모두 비판하면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적이며 대안적인 제 3의 길을 제안
- 맑스-레닌주의식 공산혁명에 반대하고, 동시에 수구적으로 회귀하던 자본주의의 극우화(제국주의화)도 반대
- 프로이트, 맑스, 헤겔의 관념철학에 근거하여 자가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19 세기의 맑시즘이 설명할 수 없었던 20 세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실증주의적(반논리경험주의) 방법, 사회학적 방법, 심리분석적 방법, 실존주의적 방법(죽음과 대비되는 살아있음(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모든 사유의 가장 큰 관심 주제여야 한다는 철학의 분파) 등을 활용
- 프로이트, 맑스, 헤겔 이외에도 칸트, 베버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으며, 실증주의, 유물론, 결정론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이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는 하버마스가 있음

❖ 읽기 전의 준비운동

1. 자본주의 비판의식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는 사회적 계급과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는 엄연히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동일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계급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중문화 • 선동 • 협박 • 전통 • 윤리 • 반공주의 등의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산업화(근대화) 시대는 계급 계층사회라고 단언한다.

이 책은 더 나아가 그 다음 단계인 성찰적 근대화(저자가 만든 고유 단어)의 과정에서 하위 계급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공산폭력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모순들을 일시에 전부 혁파하는 것이 산업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책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다. 또 사회 계급은 자본주의가 더 발달함에 따라 저절로 사라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글의 저자는 산업사회의 계급이 사라진 이후에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2 차적 근대화(성찰적 근대화)과정 중에는 과학기술적 위험이 추가되면서 전 지구적인 위난(危難)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또는 상대주의(Relativism)

영미철학의 경험주의에서는 실재로 존재하는 (따라서 직접 관찰 가능한)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경험과 관찰의 의미를 사유하는 것이 중요한 철학적 목표다, 그러나 1960년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의 발간 이래로 과학의 개념 • 논리 • 내용 • 인식적 판단(참/거짓의 판단) • 객관성 • 합리성 등은 관찰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 사회 내부의 사회정치적 절충과 타협의 결과라고 보는 학파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70년대 초반부터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많이 활동하여 에딘버러 학파라고 불린다.

이들은 경험이 과학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사회관계들(친분, 고용 사제 관계)간의 절충, 타협, 압력, 선동 등을 통해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진다(구성된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과학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사회구성주의라고 한다.

과학적 실재성과 진리성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한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착시된 현상이다. 즉, 나의 선생님이 그 이론을 시험을 통해 강요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론이 진리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압력 강요 타협으로 구성되는 지식이 바로 과학이다.

과학적 진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상대주의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는 동의어이다. 그러나 맑스는 과학의 합리성, 실재성, 진리성을 믿었기에 상대주의자도 구성주의자도 아니었다.

이 책의 저자는 과학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협되는 것이라는 사회구성주의에 동조하면서도 과학의 발전을 인정하면서 상대주의에는 반대하는 듯이 보인다. 맑스주의자로서 저자는 과학의 발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3. 합리화(Rationalization)

Ratio란 비율을 뜻하는 단어이다. 여기서 파생된 합리화 rationalization은 비율(몫)을 나누는 것, 즉 땅가르기(구획 나누기)라는 뜻이 있다.

사회학에서 합리화란 사회내의 사람들의 행동 동기가 전통 가치 감정 등으로부터 합리성이나 이성에 근거한 개념들로 교체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부 내에서 관료들이 도시를 계획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합리화 과정이다.

효율성과 같은 합리성이나 이성에 근거한 개념들로서 생활공간을 건설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합리화를 흔히 발전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도 합리화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것에 대한 파괴 혹은 재구성과 같은 약간은 부정적 어감을 가지며 합리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4. 성찰(Reflection)

성찰의 단어적 의미는 반사, 반영, 되돌아보기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 나타나는 “성찰적”의 의미는 과거 모습을 되돌아 본다는 것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재통합,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주로 쓰인다. 이는 헤겔 철학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것들이 서로간의 갈등 속에서 재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재구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서양고전강독 4>>

제2강 위험사회 1부 위험사회의 윤곽

1장 분배논리와 위험의 분배논리

2장 위험사회와 지식의 정치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1장 분배논리와 위험의 분배논리

근대화 사회

산업사회, 결핍사회, 계급사회, 부의 불평등 분배사회

성찰적 근대화 사회

개인사회, 근대화성찰사회, 위험의 불평등 분배사회

위험이란?

핵위험, 산림파괴, 질병, 식품오염 등 지구적 위난(55)

인지되지 않는 위험(55), 유독물질, 핵물질 등 물리화학적 공식에서 존재

과거 위험은 위생부족이 주원인, 현재는 산업적 과잉생산(55)

근대화의 직접적인 결과(56)

위해와 불안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식(56)과도 관련

과학적 지식 혹은 반과학적 지식사이에서 존재(57)

변화, 과장, 각색, 축소되면서 사회적으로 구성(57)

위험의 분배

사회적 위험집단의 존재(57)

부자와 권력가도 타격을 동시에 받는 부메랑효과(58)

사적 생산의 부수효과를 공적 수용(58)

생태계의 평가절하와 국제적 불평등 발생(58)

위험 확산과 상업화는 자본주의의 새 발전단계(58)로서 거대 사업(59)

계급지위에선 존재가 의식을 규정, 위험지위에선 의식이 존재를 규정(59)

위험이 사회 경제 정치적 파국적 폭발력 가짐(60)

위험의 [사회적, 철학적] 사유 필요(62)

위험의 기술주의적 자연주의적 사유 한계(60)로 사회 문화 정치적 의미의 내재(60)

동일오염인자가 연령 성 식사습관 노동유형 정보 교육 등에 따라 다른 의미(62)

위험의 인식

부는 획득의 긍정논리, 위험은 처분 회피 부정 재해석 제거의 부정논리(63)

위험으로 해석되기위한 이론 실험도구를 요구하므로 논쟁에 의해 중계(63)

위험의 인식은 이론적 과학적 의식이 필요(65)

위험의 인지불가능성으로 인해 수용의 문제 발생(65)

위험이 과학적 합리성(조사 평가 관리)과 사회적 합리성(사회적 허용한계)간의 균열 초래(67).

위험의 갈등

기후변화 위험과 핵에너지 위험은 상호갈등(69)

삼림파괴가 다람쥐때문인가? 산업화때문인가?

산업화때문이어야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광분해물질, 탄화수소류들의 공해물질이 등장(70)

공해물질 원인이 자동차인가? 석탄발전소인가? 옆나라인가? (71)

이때 지목된 위험 생산자들은 반박하며 다른 원인[고등어]에 책임 전가(71)

모두가 원인이자 결과이며 따라서 원인이 아니다(72)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행위 하지않으면서 물리적으로는 행위(72) [환경시위에 경유차 물고가기]

미래가 현재에 대한 행동 원인 (환경파괴와 핵위협이 젊은이를 거리로)(74)

위험은 위험의 생산자에게 다시 부메랑 효과(74)

부는 계급 상층에 축적, 위험은 하층에 축적 이로서 위험은 계급사회를 강화(77)

빈곤은 위계적 스모그[미세먼지]는 민주적 따라서 위험사회는 정확히 계급사회가 아니다(77)

[위험사회는 계급사회면서도 동시에 계급사회가 아니다]

모든 것이 위험하면 초기 히스테리에서 무관심으로 이동, 그 후에 다시 그 반대로 이동(82)

위험은 위험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위험(부메랑 효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공격(82)

위험은 소유와 이윤을 위협하며 공적 수용 요구(82) (위험의 생태적 공공수용)(81)

위험 속 갈등은 영구한 자연 착취의 여부, 진보 변영 경제성장 과학적 합리성의 타당성 여부임(근대화 교리투쟁)(83)

위험은 지역적 국제적 불평등 초래(84)

위험의 비가시성은 위험인식을 태동시키는 동력이며 증거(91)

위험의 경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하여 독성물의 목록 작성(91)

환경운동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업을 보장하는 번창하는 산업분야.(91)

위험은 괜한 걱정, 증명되지 않은 것, 과장된 것, 더 연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됨(91-92)

위험의 사회

위험으로 피해와 이윤을 얻은 사람들간의 적대감(93)

위험 지식을 구성하고 퍼뜨리는 대중매체 권력 강화(93)

과학(위험 생산자)과 미디어(위험 소비자)간의 적대(93)

위험의 비난은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받음(93)

위험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시장기회를 얻어 확대(93)

화학자들은 피해자 가해자 양편에 속함(93)

대중은 은폐와 폭로 사이에서 동요(93)

모든 상황이 막장 정치극인지 아닌지조차 결국엔 아무도 모름(94)

위험으로 위태로운 사람들의 새 공동체가 비계급적으로 탄생(94)

갈등과 합의가 위험사회 발전의 동력(94)

계급사회에서 민족국가로 위험사회에서 위난공동체 세계사회(유토피아)로(95)

계급사회의 정치적 주체는 프로레타리아, 위험사회에서는 희생자가되는 모든 사람(96)

계급사회의 발전동력은 평등, 위험사회에서는 안전(97)

불평등한 사회에서 불안한 사회로(97)

부를 목표로 하는 사회에서 방어적 예방의 사회로(97)

파이를 나누어 먹고 싶어하는 것(나는 배고프다)에서 중독되지 않고 살아야하는 것(나는 두렵다)으로 목표가 바뀐 사회(97)

필요의 공동성(거래시장)에서 불안의 공동성(시민단체)으로(97)

불안에서 비롯된 유대로 묶인 위난 공동체 발생(97)

2장 위험사회와 지식의 정치

위험의 구성

위험은 화학 생물학 의학적 가정 방법 진단 논쟁에 의해 구성(101)

계급사회에선 존재가 의식을 규정(103) [인간이 불평등의식을 가짐]

위험사회에선 의식이 존재를 규정(103) [위험물질에 대한 의식이 그 존재를 믿게함]

위험은 외적지식에 의존하다가 하룻밤사이에 트로이의 목마로 변신(104) [라돈침대]

전문가들이 피해자를 선별(104)

위험결정은 탐구 가설 방법 절차 허용치 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제(105)

발견된 것이 위험인지 아니면 우리의 견해인지 불분명(107) (위험 인식과 위험은 하나다)

위험이 판매시장을 만들어 스스로 확장(108)

위험 자체가 시장, 오물은 보전하며 여과기 설치, 위해들의 육성(109)

과학이 위험의 기원과 성장에 개입(112)

순수과학의 결백함을 빙자하여 시민 저항을 막음(118)

위험의 인식

한계 허용 설정 논의에서 미량의 중독은 정상(121)

허용치는 두려움과 질병을 부정하기위한 과학적 합리성(128)

허용치의 곡예사들이 잘 모름에도 위험하지 않다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위험(128)

위험의식은 과학의 부정에 맞서 형성, 여전히 과학에 의해 부정(128)

위험 관련되는 작업들은 여러 경계 간 협동을 필요(134)

이론과 실천, 역량과 책임, 가치와 사실, 윤리와 과학, 정치와 공론, 과학과 경제, 전문가들과 전문가들간의 협동(134)

위험 의식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대안 공동체가 부상(134)

피해자들이 입증을 위해 과학적 분석방법을 이용(131)

위험의식은 과학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과학을 믿는 성향 형성(131)

경험주의에선 관찰로부터 지식을 형성(132)

이젠 독극물 지식이 독극물 관찰을 가능케 함(134)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회피의식과 주문, 직관, 의심, 확실성을 가짐(134)

유기적 생명의 경험에 기반한 자연의식 발생(135)

위험의 연대

위험 속에서 살아있는 사물들의 유대 형성(135)

위험 자체가 아니라 위험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불안을 유발한다는 식의 희생양 생성(137)

위험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인 문화적 자격요건(138)

위험 증대로 정부의 개입과 권위가 확대되어 긴급사태가 정상사태인 파국사회의 도래(141)

위험은 관료적 권위주의 강화; 오염토지의 공적 수용, 농업 통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파종 수확 판매시기 통제] (142).

위험방지 목적의 전제주의와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에 도전(143)

자연파괴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동력(145)

탈자연(자연파괴)으로 입은 상처에 관한 사회적 협정 체결(144)

환경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사람들의 문제(145)

화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위험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확장되면서 비로소 인식됨(148)

<<서양고전강독 4>>

제3강 위험사회 2부 사회불평등의 개인주의화

3장 지위와 계급을 넘어서

4장 나는 나 : 가족 내부 및 외부의 성별화된 공간과 갈등

5장 개인주의화, 제도화, 그리고 표준화: 생활 상황과 생애의 유형

6장 노동의 탈표준화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제2부 사회적 불평등의 개인주의화

: 생활형태들과 전통의 사망

2부 도입: 성찰적 근대화

산업사회의 계급 계층 가족 성적지위에서 해방(151)

복지국가 속에서 개인 결정에 좌우되는 성찰적 생애(151)

대집단사회를 반대하는 개인주의적 생활양식(152)

개인주의화된 사회불평등의 자본주의 사회(152)

사회체계 문제들이 개인적 실패로 변형(153) (개인과 사회의 새 직접성)

사회계급과 성적지위에서 해방된 여성이 이혼 등으로 인해 새 빈곤 상황에 직면(153)

개인이 사회 단위가 되어 생활방식의 제도화 표준화(154)

개인주의화는 새로운 사회문화 공동성을 출현(155)

위험에 대한 사회정치적 저항의 신사회운동 출현(155)

생태운동 평화운동 페미니즘운동들은 위험사회의 새 위험상황을 표현(155)

3장 지위와 계급을 넘어서

성찰적인 삶

선진사회는 계급사회 극복 후 안정적 불평등구조 사회(158)

계급구분 상실 후 다양화와 개인주의화 등장(159)

개인주의화의 사회불평등적 부정적 효과 발생(161)

개인 고립, 대가족내 부수입 소멸, 임금비중과 소비의존도 상승, 고용안정 악화, 여성실업률 상승(161)

교육은 상향이동을 요구하고 개인주의적 이력쌓기 촉진(162)

노동시장에서의 독립은 사회적 이동성 확보(163)

교육내 경쟁으로 또래집단내에서 다시 더 개인주의화(163)

교육 이동성 경쟁이 상호보완적으로 강화하며 개인주의화 촉진(163)

소비유형 생활양식 민주화(자동차소유, 휴일여행), 여성들의 개인주의화, 노동관계의 사법화(개인 이 직접 권리옹호)(164)

물질적 빈곤화 극복 후 개인주의화 확립(165)

개인 집단내부에서 새 분화구조(외국인 노동자)와 위계질서 발생(167)

공동도시주택은 전통 공동체 소멸 초래, 사회관계망의 개인적 선택 유도(사회적 유대의 성찰)(167)

자신만의 사회관계를 선택 유지 능력은 특별한 학습능력(168) [사교성은 발표 토론 교육의 결과]

학습능력 차이로 사회관계망 형성에서 새로운 불평등 발생(168)

불완전성과 불평등의 성찰적인 삶(168)

개인제일주의는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168)

정체성 형성 장소는 인종 종족 민족성 성 연령 등으로 구별된 결속과 갈등의 장소(169)

새로운 사회적 생활양식과 집단 정체성 태동(170)

계급사회는 개인주의화의 원자화로 종말(170)

개인주의화된 피고용인의 사회(171)

위험, 위험지각, 위험관리의 갈등과 집단 형성(170)

사회 정치적 상황(노동법)과 불평등에 노출되고 사회적 문제는 개인 심리적인 문제로만 이해(171)

사회위기는 개인위기, 개인 위기[부적응, 죄책감, 불안, 갈등, 노이로제]는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지 않음(171)

사안별로 상이한 집단과 진영들이 일시적 연합 해산하며 정치 사회적 동맹 형성(172)

실용주의적 동맹들은 대중매체에 의한 사회적 유행에 민감(172)

개인 운명은 경제위기 경기활성화 대학입학허가 전문직종 동년배의 크기 등에 의해 결정(173)

4장 나는 나, 가족내부 및 외부의 성별화된 공간 과 갈등

남녀불평등의 다차원성

노동 직업 정치 경제적분배 상의 남녀불평등 발생(176)

성적관계 애정 결혼 부모됨과 같은 양성간의 관계로부터 기원(176)

남녀평등의 신장이 오히려 남녀불평등을 더 분명하게 의식시킴(177)

여성의 평등에 대한 기대와 불평등한 현실간의 모순, 남성의 상호책임성 구호와 여전히 넓은 성역할 부담의 모순에서 남녀 적대감 발생(177)

봉건적 여성역할로부터의 해방 바로 그 첫 역사적 단계에 진입 중(177)

핵가족의 산업사회는 여성의 가사를 전제하는 남녀불평등에 의존(178)

산업사회 해체 단계인 성찰적 근대화에서는 남녀불평등이 문제와 갈등의 원천(178)

남녀간의 적대

가족내의 노동분업 [남자는 임금노동 여자는 가사노동] 악화(178)

비전통적 다양한 남녀동거형태에서 개인적 제도적인 새로운 갈등 발생(179)

일상에서의 여성보호 부족[혼자 사는 여자들에 대한 공격], 유연한 노동시장[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충분한 사회보호정책이 사적 갈등을 악화(179)

근대적 봉건사회인 산업사회는 사적 영역 속으로 내파중(180)

남녀의 적대는 사적 관계에서 분출(180)

식당 침실 아이방이 싸움터, 격렬한 토론과 말없는 대립, 별거와 재결합, 신뢰상실, 이혼의 고통, 자녀의 우상화, 이별한 배우자와의 투쟁, 억압의 탐색(나는 나 자신이라는 억압) 등이 발생(180)

나르시즘의 시대 속에서 남녀 모두 진지전(180)

양성간의 적대는 근대성과 반근대성 사이의 모순 속에서 마치 계급투쟁처럼 분출(181)

산업사회

시장규칙과 계약에 근거(181)

핵가족화 진행(181)

종속적 노동에 대한 묵종(181)

여성의 무임금 가족노동이 초래하는 운명적 불평등 사회(181)

반만 산업적이고 반은 봉건적(182)

생산과 가족에서의 노동분리(183) [남자는 임금노동, 여자는 가사노동]

출생에 의한 여성의 운명적 생활조건(183)

애정적 약속을 통한 불평등의 은폐 (183) [오빠 믿지?]

사랑 결혼 부모됨 속에서도 가족간의 차이와 적대가 확립(183)

남성을 고무하는 철학 종교 과학 간의 동맹 발생(183) [역시 상남자!]

새 봉건조건의 창출(183)

성찰적 근대화

[입시준비, 입학, 스펙, 취업, 경제력, 여가 등에서] 여성도 시장의존적인 표준화된 생애 요구(182)

가족도덕과 성적금기의 해소(182) [술 담배 피임용품을 구매하는 자연스러운 여성의 모습]

여성의 노동시장 편입(183)

가사와 임금노동의 재통합으로 남녀간의 불평등 교환(183)

부모됨의 분열로 모성과 부성간의 충돌(183)

불평등한 사회제도내에서 남녀평등은 실현 불가능(183)

여성해방과 가족위기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일시적인 어머니로서의 임무(인구학적 해방)(185)

개인주의화, 핵가족화에 따라 여성이 이웃 친지에 대해 자율적이 됨(185)

기술자동화로 가사에 특별한 기술 필요없음 (가사의 탈속련화)(185)

합법적 임신중절, 피임, 가족계획으로 모성의 운명에서 해방되어 남성 규범에 제대로 대항(186)

이혼증가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유입(186)

교육기회의 균등화로 여성도 직업 동기 부여(186)

직업적 경제적 남성역할행위는 강화(188)

가족 화목의 약화로 남녀는 더욱 적대적(189)

여자는 이혼 후에 아이들은 있지만 수입은 없고, 남성은 수입은 있지만 아이들은 없는 상태(189)

신이 사라지자 [종교적] 죄가 드러나진 않지만 다양한 접촉은 더 덧없음(190)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 이혼남의 외로움 증가(191)

홀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 유지(191)

위협과 두려움이 결혼생활의 기초(191)

가족으로 인한 위기로 인해 다시 가족 발생(191)

[남녀 간의] 사적 해결책을 통해 타협되는 동안에 위험은 내적분배(194)

결혼과 남녀관계는 근대화 시장사회의 개인화된 모순들이 응축되는 장소, 동시에 더 이상 응축되지 않는 장소(194)

결국 결혼은 이혼하기위해 하는 것(195)

아이들은 외로움에 대한 마지막 대안이면서도 개인주의화의 장애물(197)

성 결혼 애정 부모됨 직업 노동 정치 가족내부의 불평등은 여전함(198)

대량실업으로 남녀의 전통적 역할은 재안정화(198) [실업의 공포가 남녀의 불평등을 재봉합]
사적인 남녀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폭증이 모두 개인의 심리적 문제라고 치부(200)
남녀 사적 갈등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무시(201)
노동시장사회의 기본단위는 독신인(202)
노동시장은 가족 결혼 부모됨 부부관계를 무시(시장은 가족 해체자)(202)
개인주의화가 결혼과 가족관계(육망하는 관계)에 대해 위난을 줌(203)
독신 생활을 위해 마련한 것들이 외로움의 감옥(역설의 사회화)(203)
양성간의 평등요구가 [남녀] 격리상황 초래(204) [펜스 룰]
불평등과 결합된 제도내에서 남녀평등은 불가능.(204)

협동의 제도화

배우자의 동시취직, 가족들을 위한 직업상담, 협동적 고용모델을 실현 중(205)
상시적 대량실업으로 이런 조치들이 비현실적(205)
최소수입 보장 [최저임금 고용할당제], 사회적 부조 [사적보험,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노약자들의 보호, 사회보장, 노동일의 감축 [대체휴일, 의무휴무] (205)
부모의 법적 승인, 공동학습지도 등으로 봉건성을 넘어 함께 살아가기 실천 중(206)
공동생활은 양성관계의 혁신과 유대를 소생시키는 중(206)

5장 개인주의화, 제도화, 그리고 표준화

: 생활상황과 생애의 유형

개인주의화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 자본집적, 분업, 시장망 속에서 개인이동과 대중소비의 결과로 20세기 중반 출현(211)

근대화 산업화의 마지막 단계(211)

전통적 지배와 가족부양으로부터의 해방(211)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속박과 통제(211)

[대가족의] 실제적 지식과 지도규범이 사라져 전통적 안전의 상실(211)

지위에 기반한 계급의 붕괴(213)

남편 부양의 약화(213)

협상으로 맺어진 임시적 가족유형 등장(213)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장소의 탈집중화 등 저고용 발생(214)

개인이 생산의 단위로서 고도의 표준화 발생(214)

돈에 의존하는 대량소비(214)

개인의 삶은 사회제도에 의지하고 통제 받음(215)

개인들은 노동시장 법령 생활보조 교통계획 소비공급에 의존(215)

의학적 심리적 교육적 상담과 보호에도 의존(215) (새로운 사회적 속박)

제도화와 표준화

같은 계급 사람들이 다른 생활양식 문화 사회유대 정체성을 선택(215)

계급지위가 세계관, 관계들, 가족지위, 사회적 및 정치적 이념,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함(215)

개인주의화하의 새 [제도적] 종속성으로 개인적 자율화가 더 불가능한 [모순적] 사회화과정(215)

개인은 전통적인 속박과 부양관계에서 해방되지만 표준화되고 통제 받는 소비자(216)

개인은 유행 사회정책 경제주기 시장에 의존(216)

개인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조건들에도 의존(216)

갈등과 위기들이 입학 졸업 취직 퇴사 은퇴 등 삶의 전 주기에 등장(216)

여자는 가족과 조직에 의해 둘다 영향 받는 이중 갈등(216)

개인은 대중매체가 채택하는 여론 습관 태도 생활양식 주택 가구 대중소비 등에 의해 통제됨(217)

시장에 종속된 자각되지 않은 고립 상황(216) (외적통제의 표준화)(217)

교육 직업 사회보호체계 규제가 끊임없는 개인 생애에 개입(217)

개인주의화는 제도화, 생활상황의 정치적 구성(217)

대중매체는 개인을 격리하며 표준화(217)

격리된 대중 은둔자들이 표준화된 집합적 존재로서 개인적인것과 제도적인것들 사이에서 정신분열 증을 겪음(218)

사적영역은 다른 곳의 조건들이 내부화하여 사적으로 되어진 외부(218)

개인이 [이미 내린 결정과] 내리지 않은 결정에도 책임(221)

시험낙방 실업 이혼 등은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실수로 간주되 갈등 증폭(222)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과 집단을 선택해야하며 이때 정체성과 이미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222)

[개인의] 제도적 종속성이 커지면서 제도와 연결된 위기도 커짐(219)

사회의 인적서비스, 행정 및 정치제도 등 제도적 조건이 개인적인 삶의 제약요인(220)

가족 임금노동 교육 고용 행정 교통 소비 교육 등 제도적인 것이 개인에게 마찰 불화 모순 생산(223)

체계적인 모순들을 전 생애에 걸쳐 해결해보려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223)

전 지구적 매체 네트워크로 개인 생애는 전 세계에 개방(224)

세계사회는 이미 생애의 한 부분(224)

6장 노동의 탈표준화

직업

직업은 신분 확인 장치(227)

경제적 및 사회적 위치, 욕구, 능력의 평가 지표(227)

직업을 통해 개인은 사회에 접근(227)

예전의 보장과 보호기능 상실(228)

여성 노동참여, 정보기술 및 로봇생산의 영향을 받아 광범위한 시간제로의 전환 중(229)

임금노동의 성찰적 근대화

노동계약, 작업장소, 노동시간의 표준화 약화

유연하고 다원화된 저고용 확산 (임금노동의 시공간적 유연화)(230)

평생 전일노동의 규범 파괴됨(231)

임금노동의 탈집중화, 출근율 이완, 부서들의 지리적 확산과 네트워크형성, 재택근무, 외주화,

동일장소에서 함께 일하기 감소, 대규모 사업장 포기, 비가시적 조직의 기업 등장(231)

저고용이 새로운 불안과 불평등 초래(232)

육체적 정신적 건강위험의 사유화(232) [건강의 개인책임화]

노동자에게 위험 대비 비용 전가 (위험사회의 저고용체계)(232)

[유연한 탈도시화된 고용이] 전자장비에의한 일상적인 지역이동성의 제한 초래(233) [재택근무용 컴퓨터에 의한 통제]

유연하고 다원적인 저고용들은 더 철저한 임금노동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 임금노동이 아님(233)

건강 노령 실업보험을 못 받는 초단시간 근무 혹은 계절적 고용은 정상적 임금노동이 아님(239)

표준화된 산업사회로부터 다원화되고 유연하며 탈집중화된 저고용체계로의 이행(240)

직업을 못 구하는 생활이 표준적 생애(240)

저고용이 고용체계에 통합(240)

사회보호체계 없이는 빈곤이 미래를 위협(241)

모든 사람에게 최소수입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241)

<<서양고전강독 4>>

제4강 위험사회 제3부 성찰적 근대화

: 과학과 정치의 일반화

7장 진리와 계몽을 넘어선 과학

8장 정치적인 것의 개막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제 3부 성찰적 근대화: 과학과 정치의 일반화

3부 도입: 성찰적 근대화

봉건 농업사회에서 19세기에 근대산업사회 이후 개인주의화 발생(244)

남녀의 표준적 생애(244)

핵가족과 노동 표준화(244)

복지국가의 보호를 받는 노동시장사회(244)

사고[사상] 생활 노동에서 역사의식상실(245)

사회제도적 고통과 불안을 개인적으로 대처하다가 충격과 혼란(245)

교육 상담 치료 정치와 관련된 사회제도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245)

산업사회로부터 성찰적 근대화를 거쳐 위험사회로 전환(245)

자연파괴는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체계와 사회에도 영향(245)

자연파괴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으로도 작동(245)

산업사회는 부의 논리에 따라 위험도 분배(245)

위험사회는 부의 분배와 위험분배는 양립불가능하며 서로 경쟁(245) [위험사회에선 돈을 써도 위험을 회피 불가능하며 전지구적으로 동시 위협]

산업사회는 전문화된 과학과 정치를 통한 통제사회(245)

위험사회는 과학과 정치의 속박과 통제가 해체.(245)

7장 진리와 계몽을 넘어선 과학

과학

과학은 위험 유발 원인, 위험 정의 매체, 위험 해결책(248)

과학은 위험을 유발하기도 비판하기도하는 모순(248)

근대산업사회의 성찰적 근대화처럼 일차적 과학화의 성찰적 과학화(완전한 과학화) 진행 중(248)

성찰적 과학화는 과학 자체의 기초와 결과에 과학적 회의주의를 적용(248)

일차적 과학화에서는 과학의 진보를 신뢰(249)

성찰적 과학화에서는 과학이 문제의 해결책이며 원인(249)

과학이 주장하는 진리와 계몽의 탈신비화(248)

과학 작업의 내적 외적 관계 변화(248)

과학의 오류가능성, 지나친 복잡성과 불확실성 성찰 중(250)

과학은 금기의 파괴자에서 금기의 구성자(251)

과학의 사회적 기능은 행동기회의 개방과 패쇄사이에서 동요(251)

과학전문가들 내부에서도 상호 갈등(251)

경직화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동적인 과학적 합리론으로 전환 중(251)

과학기술 자체가 문제 및 실수의 원인(254)

과학의 실수와 관련되는 위험으로 인해 과학기술의 발전 기회도 상실(254)

과학이 과학을 만나면서 온갖 회의주의와 경멸 초래(255)

위험이 과학 진보 전문가 기술에 대한 비판 초래(255)

위험은 실수를 내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하고 외부로부터 과학을 강제하고 지시(255)

대중의 위험의식과 위험갈등은 과학에 맞서는 저항의 과학화 초래(256)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는 대안과학과 변호과학들의 형성(256)

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과학전문가들의 등장(256)

위험으로 인식되고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론 실험 측정도구 등이 필요(258)

위험은 결국 과학적으로 구성됨(258)

19세기부터 지금까지가 과학의 교조화 과정(일차적 과학화)(262)

과학 비판 분과들(과학사, 인지사회학, 과학사회학, 심리학 등)(261)이 과학합리성의 교조화 비판(262)

과도한 복잡성으로 과학의 인습화 봉건화(266) [교조화]

과학외부에서 새로운 과학자 집단이 형성되어 과학자체를 평가(266)

일반인과 과학전문가 사이의 차이 감소(267)

과학적 논쟁은 과학의 절대 권위를 공격(267)

상이한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이 경쟁적으로 진행 중(267)

과학의 권위 감소로 운명론 점성술 자아경배 자아희생 등이 다양한 교리 등장(268)

이데올로기와 편견들이 과학으로 무장하여 과학에 대항(268)

과학의 주장을 기각하기위해 과학자체에 의지(268)

과학적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결과의 반대의견이 먼저 등장(사전통보)(268)

논쟁 없이 과학을 신봉하는 대중의 소멸(268)

사람들은 이야기되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부수효과를 추가하여 말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268)

과학의 비대한 복잡성은 다양한 전문가들 집단을 마음대로 선택 가능하게 함(273)

어떤 전문가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써 정치적 계획이 미리 결정됨(273)

반갑지않은 결과들의 전문적 사전 봉쇄 가능(273)

전문화될수록 과학의 계산불가능성 상승(280)

세분화와 극단적 복잡성으로 과학이 안전에 대한 요구를 불충족(274)

화학산업은 폐기물을 생산하고 정수장치도 판매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제를 다시 판매(281)

과학은 과잉전문화를 통해 문제해결과 문제생산의 사슬 형성(281)

경쟁적인 과학기술발전의 '비조종성'을 제어할 제어장치와 운전대를 설치해야 함(283)

침묵하는 이성이 과학에 맞서야 한다는 희망의 요구(283)

과학의 자기변화와 자기비판을 통해 이론적 실천적 계몽 요구됨(283)

과학기술의 실천적 자기교화와 자기개조의 필요(285)

8장 정치적인 것의 개막

위험

위험은 인간 행동, 태만,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의 결과(288)

위험의 원천은 무지가 아닌 지식, 자연에 대한 불충분한 지배가 아닌 완전한 지배에 있음(288).

위험은 산업사회의 규범과 체계로부터 [구조적으로] 기원(288)

산업사회는 기술진보 기술혁신이 사회진보 복지증대를 가져온다고 신뢰(289)

변덕스러운 유연한 투표자(swing voter)의 증가로 인하여 정치적 예측의 어려움(297)

정당들은 여성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위해 모든 수단을 이용(297)

새로운 [여성] 사회운동이 정치적 힘과 지지를 받음(297)

중앙정치체계의 약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초래(298)

기술진보가 더 이상 사회진보가 아님(298)

국가개입력 상실로 정치체계의 우위성 의문 됨(298)

정치와 비정치의 개념 기초 도구들이 새롭게 재결정됨(299)

중앙정치체계의 탈집중화로 시민이 의사결정을 받던 구조에서 해제(299)

지도자의 정치의사결정이 되지 않고 동의 참여 협상 재해석 저항의 네트워크 형성(299)

정치는 탈권력화, 사회는 정치화(정치적 근대화) (302)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의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303)

시민들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청원(303)

성찰적 근대화에서 하위정치영역들이 정교화되어 의사결정에 큰 역할(303)

의회가 무시되고 권위주의적 의사결정력의 약화(303)

시민 정치의 활성화, 기본권의 상호강화와 증폭으로 국가권위에 저항(304)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선택하는 것이 이미 재판의 결정(평결과정의 다원화, 정치화)(306)

사법적 평가절차의 불확실 불안정성으로 회색지대가 형성(306)

언론이 사회적 문제를 정의하기 시작(307) [논쟁의 승리는 언론보도의 여부]

대중매체가 과학결과와는 다른 친근함과 신뢰성 제공(307)

생활체계의 탈전통화(308)로 개인주의적 의사결정이 확대(309)되며 공식적인 위계에 반대(310)

위험 해석의 기원 장소 조건 수단이 정치화(311)

경제적 기술적 진보의 추구에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상호협력이 전제(경제적 기술적 개인적 진보는 상호연결.)(312)

그러나 위험 증가로 기술진보 사회진보의 동일성 기각(314)

갈등은 국가권력과 시민저항 단체들 사이에서 표출(314)

과학은 정당화의 원천으로서 실패(315)

위험 경고자들은 논쟁법, 조직화, 정기간행물 등으로 대중과 법정에 효과적 논거 제공(315).

현대 의학으로 제3세계 인구는 늘었으나 오히려 기아와 곤궁의 확대, 전세계적 불평등 등장(316)

장비의 정교화로 진단은 되지만 효과적 치료 수단은 없는 만성질환들의 증가(317)

체외수정 기술로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되는 것도 가능(319)

외적 통제와 내적 의학적 실천 사이의 완전한 불균형 형성(322)

가족과 결혼관계가 병원의 연구를 통해 파괴 중인데도 의회와 정부는 보건체계의 비용절감에만 관심(323)

피고용된 인간유전공학 연구자들은 사회적 환경의 전복을 무의식 무계획적으로 촉진(328)

극소전자기술은 정보흐름의 방향성과 독점화 초래(336)

정보는 생산단위를 연결 결합하는 중심적 수단(336)

정보흐름의 배분을 둘러싼 권력투쟁 중(336)

과학기술의 사회변화 가능성 가중(343)

조직의 힘은 정치영역에서 하위정치영역으로 이동(343)

미래는 의회나 정당이 아니라 연구실과 행정부에서 건설 중(343)

대안사회는 의회정치토론보다는 전자기술 유전자기술 정보매체를 통해 등장(343)

기업가와 과학자들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무책임(344)

[과학적] 진보의 중립성이 위협적으로 등장(344)

현재의 위험을 미래에 기술적으로 지배할 것(345)이라는 믿음의 약화(347)

여성노동자의 급증, 과학적 합리성의 탈주술화, 진보에 대한 신념의 약화, 의회 외부에서의 정치문화 등장(347)

[사회] 구조적 분화로 위험 정의에 관한 단일성 상실(348)

위험 해석은 경제발전의 조정과 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348)

위험 인식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선별적으로만 모순(348)

위험에 대해 [기업] 경영은 책임지지 않으나 정치는 위험의 부수효과에 책임(348)

근대화의 합리화 과정에서 과학은 본질적인 역할 담당(350)

그러나 과학은 근대화의 합리화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는 면제(350)

법적규제와 정치제도의 복지정책으로 19-20세기 초의 빈곤 위험 대처(352)

합리성에 대한 과학의 독점, 직업에 대한 남자들의 독점, 성에대한 결혼의 독점, 정책에 대한 정치의 독점들 깨어짐(355)

독립적인 법정과 언론매체가 하위정치체계(비의회적 지역정치)의 주요 지지기반(357)

반대평가, 대안적 직무실천, 조직내부의 토론, 회의주의가 하위정치체계를 제도적으로 보호(358)

핵물리학자들이 핵물리학에 반대하고 인간유전공학이 인간유전공학에, 정보기술이 정보기술에 반반대 중(358)

이제 외부세계가 시험관 속의 미래를 평가 중(358)

자기비판이 위난과 잘못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358)

공공이익을 위해 비판권을 투쟁적으로 보호해야 함(자기비판의 제도화)(358).

민주적 권리의 보호와 확장, 새로운 혁신적 사적생활 형태의 장려, 비판의식의 강화 필요(359)

<<서양고전강독 4>>

제5강 ‘과학혁명의 구조’: 준비와 서론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 강의 순서 및 소개

강	내용
5강	제5강 ‘과학혁명의 구조’: 준비와 서론 과학혁명의 구조 준비 과학혁명의 구조 1. 서론 : 역사의 역할
6강	제6강 ‘과학혁명의 구조’: 정상과학과 변칙사례 2. 정상과학에로의 길 3. 정상과학의 성격 4. 퍼즐 풀이로서의 정상과학 5. 패러다임의 우선성 6. 변칙 현상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출현 7. 위기 그리고 과학 이론의 출현
7강	제7강 ‘과학혁명의 구조’: 위기와 혁명 8. 위기에 대한 반응 9. 과학혁명의 성격과 필연성 10. 세계관의 변화로서의 혁명
8강	제8강 ‘과학혁명의 구조’: 혁명과 진보 11. 혁명의 비가시성 12. 혁명의 해결 13. 혁명을 통한 진보

◆ '과학혁명의 구조' [준비]

지구중심설과 태양중심설

기원후 2세기의 톨레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불 공기 물 흙의 4원소 배치에 따라 제일 아래에 있는 흙(지구)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완성

16세기 중반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는 더 정확하지는 않지만 더 간단한 태양중심설을 발표

태양중심설에서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으로 격하되어 운동의 문제를 발생시킴(왜 지구의 태양에 대한 운동이 느껴지지 않나?)

17세기 초 티코 브라헤는 다시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지만 다른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부분 천동설을 발표

역학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불 공기 물 흙의 4원소를 순서대로 배치하고서, 돌(흙)이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것은 흙 본연의 위치인 우주 중심으로 가려하는 목적때문으로 낙하운동을 설명

다른 비자연적 운동들은 접촉에 의한 운동(수레끌기)

15세기 유럽 중세 대학의 스콜라학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을 개량하여 물체 자체에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인 임피터스가 부여되는 것으로 운동을 설명

17세기 뉴턴은 관성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운동하는 물체의 성질을 설명

중력이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달 이상의 세계에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

데카르트는 중력이 기계적 역학적인 장치인, 플레념의 소용돌이에 의해 퍼져 나간다고 주장

플레념은 전 우주에 퍼져있어서 에테르와 매우 흡사

뉴턴은 기계적 역학적 전달장치를 거부하고 중력은 마술적인 직달작용(원격작용)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다고 생각

아인슈타인에게 중력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가 구부러져 변형되어 발생한다며 기계적 역학적 설명을 부활

현대의 양자역학은 시공간 연속체에 양자장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다시 에테르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부여

빛의 파동이론

영은 이중슬릿, 프레넬은 원반그림자 등으로부터 빛의 파동설을 확립

빛 파동의 매질[전달물질]은 에테르로 명명

별 빛의 광행차 현상은 별을 관측할 때 지구 운동방향쪽으로 망원경을 더 기울어야 하는 현상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달려나갈 때 우산을 앞으로 더 기울어야 하는 것과 유사]

에테르는 지구주변에서 추가적인 효과 기대됨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공기의 흐름(바람)으로 인해 추가적인 효과 기대됨]

그러나, 광행차이외에는 추가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에테르는 지구와 함께 운동한다고 생각됨(에테르 끌림)

[바람에 의한 추가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공기가 사람과 함께 운동한다는 생각]

맥스웰은 에테르가 전기장 자기장의 물리적 실체라고 생각했으나 에테르 끌림의 이론화에 실패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에서 에테르 효과 나타나지 않음

로렌츠와 피츠제럴드는 지구 운동방향으로 물체가 수축하여 에테르가 존재함에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에테르의 존재를 전혀 상정하지 않은 특수상대성이론의 발표

연소 이론

18세기 중반 프리스틸리 이론에서 연소는 플로지스톤 입자의 방출

연소 후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은 플로지스톤 입자의 방출 때문

라브와지에 이론에서 연소는 산소와의 결합

연소후 무게가 증가하는 것은 산소의 결합 때문

천칭과 같은 중량계의 사용으로 연소 후 무게 증가 재확인

화합물 논쟁과 돌턴의 원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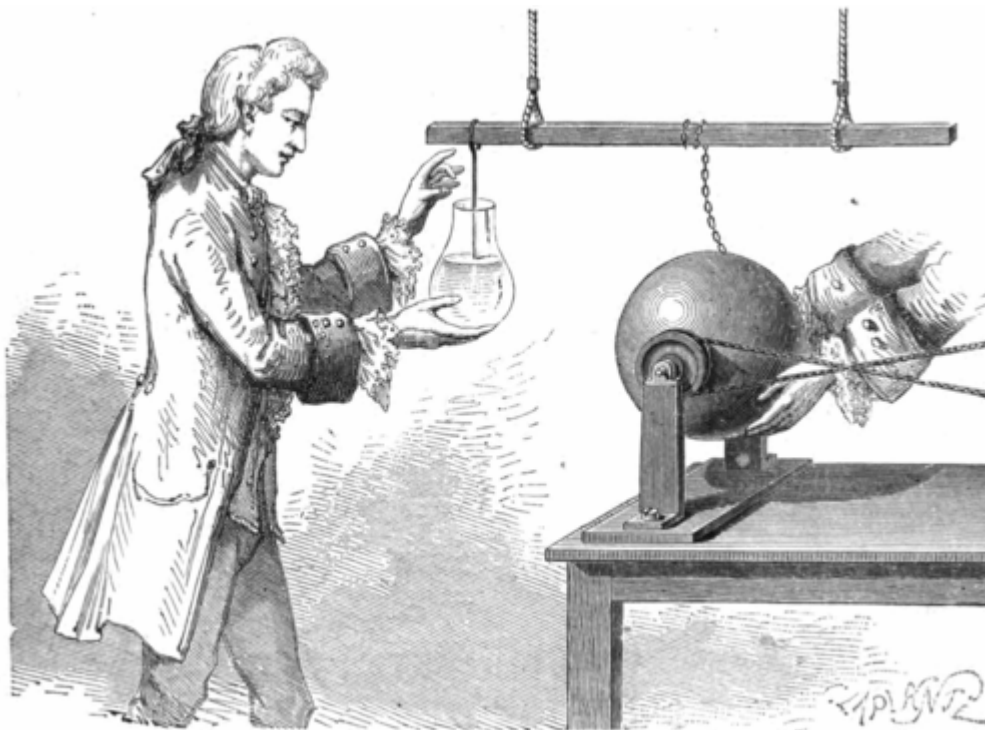
소금물과 같은 수용액은 화학적 친화력으로 결합된 화합물로 해석

그러나 소금과 물 사이의 비율이 일정성분비의 법칙에 맞지 않음

프르스트는 수용액은 일정성분비에 위배되므로 혼합물, 베르톨레는 여전히 화합물로 여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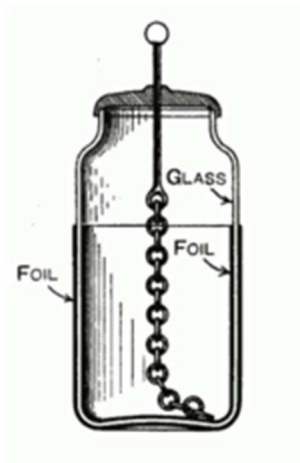
17세기 중 후반 보일의 기체 입자론이래로, 19세기 초 중반 돌턴은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화합물로 결합한다며 일정성분비를 가지지않은 수용액은 혼합물로 설명

라이덴병



<https://ko.wikipedia.org/wiki/%EB%9D%BC%EC%9D%B4%EB%8D%B4%EB%B3%91>

회전하는 유리구에 손을 대면 마찰로 전기가 발생하고 반대편의 라이덴 병에 또 다른 전기가 모아 짐



<https://ko.wikipedia.org/wiki/%EB%9D%BC%EC%9D%B4%EB%8D%B4%EB%B3%91>



<https://ko.wikipedia.org/wiki/%EB%9D%BC%EC%9D%B4%EB%8D%B4%EB%B3%91>

초기에는 병안에 물을 담았으나 이후 유리병 안과 밖에 금속 포일을 둘러싸면 더 효과적으로 전기를 저장

라이덴병은 축전지

쿨롱의 법칙

전기를 띄는 입자들간의 인력이나 척력은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

진화론

라마르크의 목적론적 진화는 진화의 방향성을 주장

다윈은 자연선택적 진화는 방향성 없이 우연에 기반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세계관, 삶의 양식(방식)

패러다임=이론=모델=예제

한 패러다임 안정적 단계가 정상과학

과학혁명의 단계

정상과학(패러다임1)→변칙사례→위기→과학혁명→정상과학(패러다임2)

변칙사례는 이전 패러다임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존재가 거부되다가 위기를 초래, 다음 패러다임에서는 혁명을 향한 증거

과학혁명은 종교적 개종으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새 패러다임은 옛 패러다임과 공약불가능함 (같은 척도로 비교할 수 없음)

포퍼의 반증주의

이론의 예측이 실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즉각 반증시켜 폐기

논리경험주의(논리실증주의적) 과학철학

20세기 초에 비엔나학파라는 이름으로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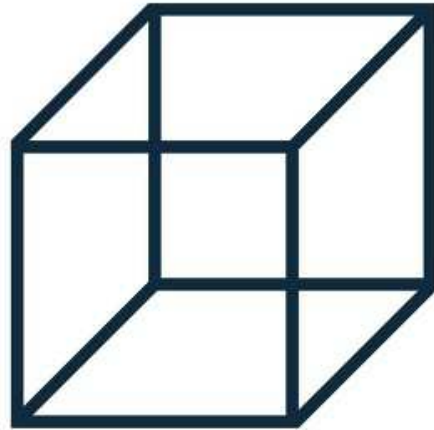
그후 영국과 미국의 주류 철학사상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으로 과학활동을 구별

과학지식의 합리화 과정인 정당화의 맥락만을 분석과 관심의 영역으로 정함

발견의 맥락에는 온갖 정치적 사회적 우연의 요소가 개입할 수 있으나 철학적 논의에서는 제외

게슈탈트 심리학(인식의 전환)



<https://brunch.co.kr/@clay1987/106>

마주보는 사람일까? 아니면 술잔일까?

정육면체는 왼쪽 아래로 튀어나왔나? 아니면, 오른쪽 위로 튀어나왔나?

‘과학혁명의 구조’: 서론

1. 서론 : 역사의 역할

교과서는 과학의 누적적 발전 내용 강조(62)

과학은 데이터를 수집 후 논리적 조작을 통해 이론화 작업일까? (62)

과학사는 최초발견자를 찾고 오류와 미신을 수정하는 작업일까? (62)

그러나 과학적인 것과 오류 미신은 구별이 어려움(63)

신화는 현재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 중(63)

역사가는 그 당대의 관점에서 그 과학의 온전성을 드러내어야 한다(64)

개인적 이유나 역사적 우연 등 임의적인 요소가 과학자 공동체의 믿음의 성분(66)

정상과학의 연구활동이란 교육 속에서 학생을 준비시키고 자격을 갖추는 과정(66)

정상과학은 근본적으로 새로움을 억제(67)

예측과 맞지 않는 변칙사례(변칙현상)의 출현으로 비정상적인 연구가 위기를 초래하여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새 정상과학 대두(67)

과학혁명은 탐구될만한 문제와 적법한 문제풀이법의 여부가 바뀌는 과정(68)

과학혁명은 세계의 변환(68)

과학혁명은 기존 이론의 재구축, 기존 사실의 재평가, 기존 실험의 재평가, 실체의 변환, 이론연결망의 개편(69)

혁명은 한순간의 독립적 사건이 아니라 광범위한 과정(69)

역사는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 구별을 위해

<<서양고전강독 4>>

제6강 '과학혁명의 구조': 정상과학과 변칙현상

2. 정상과학에로의 길
3. 정상과학의 성격
4. 퍼즐 풀이로서의 정상과학
5. 패러다임의 우선성
6. 변칙 현상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출현
7. 위기 그리고 과학 이론의 출현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2. 정상과학에로의 길

정상과학

과학적 성취를 확신하는 연구활동 기간(73)

과학자 사회가 인정하는 실천의 토대 [활동의 근거] (73)

교과서에서 이론으로서 설명하고, 그 응용을 해설하여, 관찰 실험과 비교하는 내용(73)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톨레미의 알마게스트,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광학, 라브와지에의 화학원론, 라이엘의 지질학(73)

옹호자를 유인하고 온갖 문제를 남겨놓을 만큼 융통성 존재(74)

패러다임과 동의어(74)

법칙 이론 응용 도구조작 실례[예제] 모델 규칙 표준 등 연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74)

패러다임 성립 이전

17세기말 뉴턴의 광학이전 빛의 본질에 관한 단일 견해 없음(76)

18세기 전반 플랑클린 전기학 연구 이후에야 공유된 패러다임 출현(79)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운동연구, 아르키메데스 이전의 정역학연구, 블랙이전의 열연구, 보일 부르하버 이전의 화학, 허튼 이전의 지사학[지질학]도 의견들의 불일치 시대(80)

초기의 사실 수집은 부분적 설명(81) 개인적 역사적 우연에 근거한 형이상학적 믿음을 전개(82)

플랑클린의 라이덴병 설명을 통해 그의 이론이 패러다임으로 승격(83)

패러다임 성립 이후

모든 사실을 다 설명해야되는 것은 아님(83)

실험의 가치여부, 자신감과 사기의 진작, 특수장치의 고안과 활용, 이론의 명료화, 능률의 촉진 활동(84)

전문가 집단과 전문분야의 출현, 학회 학술지 교과과정 출현(86)

교과서가 완성되면 연구는 더 어려운 측면에 집중(86)

간명한 논문의 공표는 패러다임의 공유를 가정(87)

교과서나 회고록 저술은 연구 평판의 손상(87)

각 과학분야 전문가들의 간극은 오히려 진보의 고유한 메커니즘(88)

3. 정상과학의 성격

정상과학

모형과 유형으로서의 패러다임(90)

패러다임은 완벽하게 혹은 상당히 성공적이 아닌 더 성공적인 것(91)

과학자의 생애는 지식확장, 예측증진, 패러다임의 명료화를 위한 마무리작업(mop-up work)(91)

상자 속에 자연을 밀어 넣는 시도(92)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에 주의를 집중하여 상세하고 깊게 탐구(92)

문제해결의 정확도를 높이고 새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기존 사실을 재정립(94)

패러다임은 정밀하고 신뢰도 크며 적용 범위가 넓은 방법을 발견하게 함(94)

정상과학 내의 실험과학자는 이론과 실험의 일치가 증명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추구(95)

패러다임은 문제를 설정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장치의 고안에도 기여(패러다임의 명료화 과정)(96)

패러다임의 명료화과정에는 물리상수의 결정 (중력상수, 천문단위, 아보가드로수, 줄의 계수, 전하량 측정)(96)

이론에 의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측정(베이컨식 방법)은 불가능 (보일법칙, 쿨롱법칙, 줄의 법칙 등도 독립적인 발견이 아님)(97)

보일의 법칙은 공기를 탄성유체로 인식하고 유체정역학의 개념이 적용되고 난 후에야 구상(97)

쿨롱의 법칙은 전기력이 떨어진 거리에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야 가능(98)

패러다임은 실험의 고안과 결과의 해석에 사용(99)

사실적 정보의 예측(천체력(달력), 렌즈특성, 전파의 전파곡선)은 과학자가 아닌 테크니션의 소관(100)

학술지의 목적은 패러다임의 새 응용을 발굴하고 기존 응용의 정확도 향상(100)

갈릴레오와 호이겐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17세기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접근법은 18세기 동안 베르누이 달랑베르 등에 의해 확장(101)

패러다임 명료화

이론적 명료화: 뉴턴 법칙의 진자 적용을 위해 추를 질량점 취급하며 공기저항 무시(102)

관측적 일치 노력: 중력의 영향을 받는 3개이상의 물체(3체문제)(102)에서 각 행성들의 인력을 무시하며 근사적 일치를 시도(오일러, 라그랑쥐, 라플라스, 가우스)(102)

재정식화: 18세기 오일러 라그랑쥐, 19세기 해밀턴 야코비 헤르츠 등에 의한 수학적으로 동등하나 더 논리적이고 더 심미적인 뉴턴역학의 재구성(104)

실험을 통한 모호화의 제거: 이론을 써서 만든 장치의 측정결과로 다시 그 이론을 더 세련화(쿨롱)(104-105)

정상과학 활동은 의미있는 사실의 결정, 사실과 이론의 일치, 이론의 명료화 과정(105)

4. 퍼즐 풀이로서의 정상과학

퍼즐풀이

새 발견을 얻어 내는 것이 아님(106)

예상 결과 범위는 언제나 소폭(106)

결과가 맞지 않으면 실패로 간주(106)

예기치 못한 새로움을 겨냥하지 않음(107)

패러다임 적용범위와 정확성을 증진시키는 것(107)

예측한 것을 새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107)

도구적 개념적 수학적 퍼즐풀이(108)

조각그림이나 낱말 맞추기 퍼즐풀이와 유사(108)

기술을 시험하는 것이지 해답이 없는 문제(암치료, 평화계획)는 다루지 않음(108)

퍼즐형태로 환원할 수 없는 문제는 혼란스러운 것, 탁상공론, 시간낭비(109)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여 정상과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임(109)

과학의 대가들은 미결된 퍼즐을 푸는 전문가(110)

퍼즐엔 해답이 확실히 존재(110)

퍼즐은 인정되는 해답과 그것이 얻어지는 과정의 규칙(기존견해, 선행관념)도 존재(111)

퍼즐풀이 사례

빛의 파장 측정장비의 숫자가 이론 내의 파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측정 조차 하지 못했다고 결론(111)

19세기 헬름홀츠가 물리실험으로 생리학연구를 수행했듯이 정상과학은 실험기구의 형태와 사용방식도 결정(113)

데카르트의 입자설이 형이상학적 방법론적 공약(114)

보일의 입자설이 역학 광학 열의 입자설의 토대(114)

정상과학

과학자들의 공약[패러다임]에 대한 정밀성과 범위 확장(115)

개념적 이론적 도구적 방법론적 연결망이며 퍼즐풀이의 규칙(116)

패러다임이 규칙을 파생시키지만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도 패러다임(정상과학)이 연구의 지침으로서 작동(116)

5. 패러다임의 우선성

패러다임

이론들의 개념적 관찰적 도구적 응용(117)

표준해석이나 규칙에 대한 합의 없이도 연구를 이끔(119)

어떤 규칙이 존재함을 암시하지 않음(119)

규칙없이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서로 포개지고 교차되는 유사성, 공통적 특성) 공유(120)

확립된 업적과의 유사성이나 교육 문헌을 통한 모형(모델)화(121)

연구규칙보다 더 우선적이며 더 구속력 있고 더 완전(121)

패러다임 학습

애초 과학자들은 개념 법칙 이론을 직접 배우지 않음(122)

실제문제풀이를 관찰하고 참여함으로써 알게 됨(122)

교재의 추상적 정의들로부터 뉴턴역학의 힘 질량 공간 시간의 개념을 깨우치는 것이 아님(122)

이전 성취에 근거한 모델화를 실제계산이나 실습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 전문화된 패러다임의 전수 과정(123)

이미 성취한 문제풀이를 의문없이 수용하는 한에서 규칙없이도 학습 가능(123)

전 패러다임 시대

정당한 방법, 문제와 문제풀이의 표준에 대한 심각한 논쟁 발생

사례[1]: 17세기 화학, 19세기초 지질학, 양자역학초기, 전자기이론과 통계역학초기 등(124)

사례[2]: 갈릴레오와 뉴턴역학 초기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데카르트주의, 라이프니츠 학파 간의 논쟁(124)

과학자들간에 문제해결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는 시기(125)

규칙들이 중요하게 등장(125) [당나라 군대일수록 규율만 강조]

하나의 패러다임이 확립되어도 모두에게 동일한 패러다임이 아님: 화학자에게 헬륨원자는 기체운동론의 관점에서 분자, 물리학자에게 헬륨원자는 분자스펙트럼이 없으므로 분자가 아님(127)

6. 변칙 현상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출현

변칙사례의 발견

정상과학은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님(129)

패러다임이 위배되었다는 변칙현상[변칙사례]의 지각(130)

패러다임 내의 조정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게되기까지 변칙사례는 과학적 사실이 못됨(130)

산소의 발견

플로지스톤 이론의 변칙사례(131-133)

프리스틸리는 아산화질소(1774년) 혹은 플로지스톤이 조금 덜 들어있는 보통공기(1775)로 산소를 명명

라부와지에는 보다 순수하며 호흡하기에 좋은 온전한 공기(1775) 혹은 별개의 화학종으로서 대기의 주성분 중 하나로 산소를 규정(1775년)

라브와지에는 산소가 산성의 원리가 칼로릭(열소)과 결합할 때 생성된다고 믿음(지금은 폐기된 산성의 원리는 1810, 칼로릭은 1860년대까지 남음)(133)

산소의 발견을 한 순간의 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134)

발견은 [변칙사례로 시작하여] 패러다임의 변화 시킴(134)

라부와지에 이전부터 연소물체는 대기중의 어떤 성분을 흡수한다고 이미 생각됨(135)

1777년 이후 라부와지에는 연소에 관한 산소이론을 마침내 발표 (화학혁명)(135)

라브와지에게 보았던 것을 보기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폭 수정이 필요(136)

X선 발견

음극선 실험장치에서 머리 떨어진 스크린이 은은한 빛을 낸다는 발견(136) [변칙사례]

J.J. 톰슨 경이나 크룩스 경도 빛을 내는 스크린(호려진 사진 감광판)을 이미 발견(136)

켈빈 경은 X선을 정교한 속임수로 선언(138)

이론적으로 이단시되지는 않았으나 X선은 당시 예상들에 위배(139)

결국 X선은 새로운 장을 열고 기존 분야들을 변화(139)

발견의 시기

전 패러다임 시기나 변혁의 위기 와중에는 [변칙사례] 발견은 예상되지 않음(142)

실험과 이론이 일치되면서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패러다임이 탄생(142)

라이덴 병 장치 발명 이후 플랭클린에 의해 [전기]유체이론을 수정하고 나서야 [전기가 비로소 발견되며] 패러다임 탄생(143)

산소 x선 라이덴병은 변칙현상의 사전인지로 관찰 및 이론적 인식의 점진적 출현[발견] 끝에 패러다임 출현(143)

변칙 카드게임에서 변칙카드를 초기에 인식하는데에는 망설임과 혼돈초래(브루너와 포스트먼 실험)(144)

과학에서의 새로움은 힘든 저항을 통해 구현(145)

변칙사례는 예측을 거스르며 등장하여 개념이 조정되는 시기를 거치며 인지(145)

결국 당초 이상하던 것이 예측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발견은 완료(146)

정상과학의 정점이 변칙사례

정상과학은 새로움을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유발에 효과적(146)

패러다임은 정교함 심오함 숙련화 세련화 전문화를 통해 처음에는 변화에 저항(146)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을 예측할지 알게 될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깨달음 속에서 새로움 등장(146)

변칙현상은 패러다임의 기존 배경을 거스르며 등장(147)

패러다임이 정확하고 영향력이 클수록 변칙사례는 예민한 지표 제공(147)

정상과학내의 강렬한 전통적 탐구로부터 변화가 발생(147)

7. 위기 그리고 과학 이론의 출현

위기

변칙사례 발견을 통한 파괴적이고 건설적 패러다임의 변화(148)

불안정감으로 패러다임의 대규모 변동 가능성 초래(150)

톨레미의 위기

기원전 3세기 아리스타코스의 태양중심설은 지구중심설의 합리성 속에서 무시됨(161)

행성위치와 세차운동의 예측치와 관측치의 불일치가 변칙사례(151)

변칙사례, 달력개혁 요구, 아리스토텔레스 비판, 신플라톤주의 등장으로 위기 초래(153)

톨레미의 위기가 경쟁이론에겐 기회(162)

플로지스톤의 위기

셀레의 산소획득 과정에서 플로지스톤 이론의 최초 어려움 대두(154)

나무를 태울 때의 무게감소는 플로지스톤의 방출로 해석(155)

그러나 금속가열시 무게 증가는 변칙사례(155)

17세기 레, 훅, 메이오 등이 연소시 대기로부터 뭔가 흡수된다는 이론 제안(162)

18세기 천칭저울로 연소에 의한 무게증가 추가 발견(155)

뉴턴의 중력이론에서 무게증가가 물질량 증가를 의미(155)

플로지스톤의 마이너스 무게나 연소시 불입자의 침투 등으로 플로지스톤 이론 수정변형으로 위기 가중(156)

에테르의 위기

광행자 측정에서 에테르편류 검출실패(159)

19세기 중반 프레넬 스톡스의 에테르 이론의 변형 수정으로 에테르 끌림 도입(159)

19세기말 맥스웰의 전자기이론내에서 에테르 끌림 도입의 어려움으로 변칙현상화(159)

[물체의 수축까지 도입하는] 로렌츠와 피츠제럴드의 등의 이론 난립으로 위기 가중(160)

마침내 에테르개념 없이 1905년 특수상대성이론 출현(160)

에테르 퍼즐풀이 활동의 실패 후 위기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특수상대성이론 출현(160)

에테르 패러다임이 문제들을 풀수있는 한 심도있는 탐구로 발전(162)

위기의 경우에만 과학은 새도구를 만들기 시작(162)

위기는 도구를 바꾸어야할 적기에 도달했음을 가르키는 지표(163)

<<서양고전강독 4>>

제7강 ‘과학혁명의 구조’: 위기와 혁명

- 8. 위기에 대한 반응
- 9. 과학혁명의 성격과 필연성
- 10. 세계관의 변화로서의 혁명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8. 위기에 대한 반응

반증의 어려움

과학자들은 변칙사례들을 즉각적인 반증사례로 간주하지 않음(164)

대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패러다임의 폐기[반증] 가능성(164)

패러다임 거부는 동시에 다른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결단(165)

과학자들은 뒤죽박죽된 세계에서도 살아야할 본질적 긴장 essential tension 유지(168)

한 정상과학내의 퍼즐은 다른 관점에서는 반증사례이며 위기의 근원(168)

모든 과학이론은 [잠재적] 반증사례에 직면(168)

톨레미의 예측과 관찰사이의 불일치는 코페르니쿠스에게는 반증사례(168)

프리스틸리가 플로지스톤 이론의 명료화 중의 어려움은 라부아지에에게는 반증사례(168)

로렌츠와 피츠제럴드 등이 뉴턴이론과 맥스웰 이론을 명료화시키는 작업이 아인슈타인에게는 반증 사례(168)

위기 반응

해답을 얻지 못하는 과학자는 연장을 탓하는 목수라고 비난(169)

과학도들은 증거 때문이 아니라 교사와 교재의 권위 때문에 이론을 수용(169)

교과서 내의 응용사례들은 패러다임의 증거가 아니라 패러다임 학습용(169)

대안적 해석이나 실패한 응용문제들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음(169)

과학자들은 문제해결때까지 [보수적으로] 그저 기다리려 함(170)

뉴턴의 달 근일점 예측치 실패로 만유인력 법칙 수정도 제안되었으나 1750년 클레로에 의해 응용 오류가 지적때까지 문제가 방치됨(170)

뉴턴의 수성 근일점의 예측 실패도 일반상대성이론 출현으로 해결될때까지 뉴턴이론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여겨지지 않음(170)

반증사례가 될 수도 있었지만 위기를 야기할 만큼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향후 수행작업으로 미루어 둠(171)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단계의 임시방편적 수정이 일어나다 보면 과학 규칙들이 모호해짐(172)

전문분야의 견해 방법 목적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음(게슈탈트 전환gestalt switch)(175)

한 패러다임의 위기 기간 중 수수께끼를 푸는 장치로서 철학적 분석으로도 전향(179)

위기와 새 패러다임

17세기 뉴턴 물리학의 근본적인 철학적 분석 후 20세기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출현(180)

위기는 문제영역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변칙현상을 대비시킴으로서 새 발견 초래(180)

프리스틸리 연구의 변칙현상으로부터 산소 등의 새로운 기체출현(180)

빛의 [입자설에서] 파동이론으로의 전환기에 파동설에 유리한 새로운 광학현상 발견(반사에 의한 편광, 원형디스크 그림자 중심의 밝은 점, 굵은 자국의 색깔, 두꺼운 판유리의 색깔)(181)

새패러다임 창출자들은 아주 젊던가 아주 새롭게 그 분야에 접한 사람들로서 전통적 규칙에 매이지 않고 다른 규칙을 착상하기 쉬운 사람들(182)

변칙현상이나 위기에서 다른 태도, 다른 연구성격, 경쟁적 명료화 남발, 뭐든지 해보려는 의지, 명백한 불만표현, 철학에의 의존, 기본에 관한 논쟁 등 비정상적 연구 진행(183)

9. 과학혁명의 성격과 필연성

과학혁명

옛 패러다임이 양립되지 않는 새것에 의해서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되는 누적이지 않은 발전(184)

영향을 받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혁명,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국면(185)

정치혁명에 나선 당파들은 무력을 포함한 대중설득에도 호소(186)

정치혁명은 정치외적이고 제도 외적인 사건(186)

새이론이 필연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낮은 차원의 이론들을 연결하는 한단계 높은 수준의 이론일 수도 있음(에너지보존이론)(188)

과학은 누적성의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님(190)

누적적 성격의 정상과학은 기존 테크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을 선정하는 능력 덕분(190)

기존 패러다임의 명료화가 실패하는 경우 변칙현상들이 인식되며 기존 패러다임에 동화되기를 거부(191)

새 이론은 자연에 관한 믿음의 파괴적 변화(192)

사물이나 개념의 추가적 도입없이 세계를 보는데 사용한 네트워크가 변화(198)

공약불가능성

뉴턴역학과 칼로리이론사이의 상충으로부터 칼로리 이론 폐기 이후에야 에너지보존칙 인정(192)

뉴턴역학의 질량은 보존, 아이슈타인의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197)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은 확립된 패러다임을 미묘하게 결정적으로 파괴하며 혁명적 재배치(198)

옛 이론은 새 이론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게 아님(198)

새 이론의 도움을 받아 목적에 맞게 변형되어야만 옛 이론이 새 이론의 특수한 경우가 됨(199)

그 변형의 결과로 옛 이론은 크게 제약을 받는 이론이 됨(199)

새 패러다임은 방법들의 원천, 문제영역, 문제풀이의 표본, 답의 기준 모두 변경(200)

과학혁명 전후의 정상과학은 공약불가능함(incommensurable)

과학혁명 사례: 뉴턴의 중력

17세기 뉴턴의 역학적-입자적 패러다임은 과학문제와 표준을 심층적으로 파괴하며 출현(202)

그러나 [비접촉적] 중력에 대한 [접촉적] 역학적 설명의 추구는 심각한 문제제기(202)

배격도 불가능하고 [기계적 역학적] 규범에 맞출 수도 없어서 중력을 본유적[근원적]이라고 [타협하여] 수용(202)

18세기 중엽에 중력은 [15세기 중세의] 스콜라철학적인 신비적인 성질로 회귀(202)

인력 척력은 물리적으로 비환원적인 일차적 성질로 규정(202)

[중력의 신비적 해석에 영향 받아] 18세기 중엽 전기학자들도 전기유도와 충전현상 등을, 역학적 전기소[접촉을 통해 방출되는 전기입자]로 해석하기 보다는, 떨어진 위치에서의 비환원적인 일차적 성질로 이해(203)

전기에 대한 새 본유적 해석으로부터 라이덴병에 관한 플랭클린의 분석이 가능(203)

[이런 초역학적 해석으로부터] 화학적 친화력과 치환계열에 관한 18세기문헌 등장하고 라부아지에와 돌턴에도 영향(203)

20세기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문제를 뉴턴 이전의 [역학적 기계적] 상태로 되돌려 놓음(206) [시공간 연속체]

과학혁명 사례: 플로지스톤

플로지스톤이 풍부한 물질은 쉽게 연소(194)

금속들의 공통점은 공유되는 플로지스톤에 기인(194)

탄소 황의 연소에서 산이 생성되는 반응과 연소시 부피 감소도 플로지스톤 방출로 설명(194)

라부아지에의 개혁은 기존의 설명을 박탈하고 이를 보상하기위해 [설명]기준 변화를 요구, 그러나 19세기 상당기간동안 화합물의 성질 설명에는 실패(204)

과학혁명 사례: 전자기이론

19세기 빛의 파동설은 에테르를 매질로 빛의 전파를 확신(204)

맥스웰도 에테르 확신(205)

그러나 맥스웰의 전자기이론은 매질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초기의 배격을 초래(205)

전자기이론의 [성숙으로] 패러다임화 되면서는 에테르 매질 포기(205)

새로운 문제와 기준이 출현하여 [에테르는 논하지 않으면서] 상대성 이론의 탄생(205)

문제와 기준에 대한 과학자 공동체의 관념 변화(205)

현대의 양자역학에서 공간은 에테르의 성질과 다르지 않음(205) [양자장은 에테르와 매우 유사]

패러다임의 의미

자연의 실체를 일러주고 그 작용방식에 대한 지도 제공(207)

지도는 관찰이나 실험에 필수(207)

패러다임은 지도를 만드는 데에도 필수(207)

패러다임 간의 논쟁은 정상과학[패러다임] 외부에 존재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답이 가능(208)

10. 세계관의 변화로서의 혁명

패러다임의 변화

과학자들이 연구세계를 다르게 보도록 함(209)

무엇을 보는가는 시각 개념 경험의 보도록 가르친 것(212)

별에서 혜성 다시 행성으로

1690-1781년 사이에 최소 17회에 걸쳐 천왕성을 별로서 관측(215)

1781년 윌리엄 허셀은 혜성을 발견했다고 공포한 후 몇 달 후에야 행성으로 제안(215)

천왕성을 행성으로 보는 시각의 변환 이후 1801년 이후 50년동안 20개의 소행성 발견(215)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톨레미의 천상계는 영구불변이나] 코페르니쿠스 이후에야 천상계 변화(신성, 흑점, 혜성) 발견(216)

옛 대상을 옛 기기로 관측하면서도 [변화 후]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됨(217)

전기소에서 정전기로

17세기 전기소이론하에서는 대전체로부터 전기소의 알갱이가 튀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을 거듭 관찰(217)

훅스비가 대규모장치를 이용해서 정전기적 반발을 관찰한 이후에는 [전기소 입자의 되튀김이 아닌] 정전기적 반발이 전기작용의 기본(218)

프리스틸리에서 라브와지에로

라브와지에는 프리스틸리가 플로지스톤이 빠진 공기를 보았던 곳에서 산소를 보았고(218), 원소성 흙을 보았던 곳에서 화합물 광물을 보았다(219)

라브와지에는 자연을 달리 보았고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연구(219)

떨어지는 돌에서 진자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떨어지는 돌에서 갈릴레오는 진자를 생각(219)

갈릴레오는 임피터스이론(물체를 던진 사람에의해 물체속에 붙어 놓어진 내부적인 힘으로서 물체의 지속적인 운동 원인)의 관점을 가짐(220)

임피터스로부터 낙하속도는 무게와 무관하다와, 진자주기는 진폭에 무관하다는 유도(220)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의 흔들리는 돌로부터, 임피터스 패러다임으로의 전이 이후에야, 갈릴레오의 진자가 보임(221)

임피터스 이론은 장 뷔리당과 니콜 오렘의 임피터스 이론이 일으킨 게슈탈트 전환

임피터스 이론 속에서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로부터 전환(221)

세계관의 변화

게슈탈트 전환은 데이터 재해석만의 변화가 아니다(223)

진자는 떨어지는 돌이 아니며, 산소는 플로지스톤이 빠진 공기가 아니다(223)

데이터 그 자체도 서로 다른 것(223)

대상들 자체가 변형됨(223)

옛 패러다임을 세련화 확대 명료화 하는 것이 아님(224)

진자의 패러다임

부유하는 물체에 관한 아르키메데스의 연구는 [주변]매질을 필수적인 것이 아니게 만듦(226)

임피터스 이론은 운동을 대칭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듦(226)

신플라톤 주의는 원형운동에 관심 증대(226)

이로부터 무게 반지름 이동 각도 주기만이 갈릴레오 법칙을 위한 데이터로서 활용(226)

갈릴레오의 패러다임이 주어진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에게는 존재할 수 없었던 현상(진자의 주기가 진폭과 무관)발견 가능(226)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낙하하는 돌은 [4원소] 상태의 변화로서 최종지점까지의 거리가 중요(227)

임피터스 패러다임에서는 움직일수록 점점 더 임피터스를 획득하므로 시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227)

경험의 의미

갈릴레오의 경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것과는 다름(228)

경험은 패러다임의 규칙성에 대한 지각(228)

감각적 경험은 중립적이지 않음(229)

[기기] 조작과 측정도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229)

언어는 순수한 중립적 객관적 기록을 할 수 없음(231)

코페르니쿠스 주의자들은 태양과 행성의 의미가 변화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됨(233)

플로지스톤이 빠진 공기 대신 산소, 라이덴 병 대신 콘덴서, 속박된 낙하운동 대신 진자를 보는 것이 시각의 변화(233)

패러다임은 경험의 광대한 영역을 재결정(233)

세계관 변화 사례: 화합물

18-19세기 은덩어리는 은 입자들간의 친화력 때문에 결합한다고 해석(235)

소금 수용액, 합금, 유리, 대기중의 산소 등을 친화력으로 결합된 화합물로 간주(236)

18세기말에 알려진 화합물의 일정성분비를 유리나 소금수용액이 따르지 않음(237)

18세기말 프루스트(화합물은 일정성분비 있음)와 베르톨레(화합물에 일정성분비 없음)간의 논쟁(237)

프루스트는 소금수용액을 혼합물로, 베르톨레는 성분비가 변화하는 화합물로 취급(238)

기상학자 존 돌턴은 친화력 이론을 폐기하면서 원자론 제안(238)

원자의 정수비결합이 되는 반응만이 화학반응이라고 선언(239) [따라서 수용액은 화합물이 아님]

원자론이 확립되자, 실험으로 확립될 수 없는 원자론이 거꾸로 어떠한 실험으로도 뒤엎을 수 없는 기본 원칙이 됨(239)

원자가 정수비로 화학적 결합을 한다면 일정성분비 법칙과 배수비례의 법칙도 포용가능(239)

돌턴은 새 연구방식을 열어 화학반응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세계에서 살게 만듦(240)

그러나 원자들의 상대적 크기와 무게가 다르기에 수용액의 관찰된 균질성은 문젯거리(238)

증거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원자론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한 세대에 걸쳐 화합물의 백분율 조성비가 재조정되고 데이터 자체도 변화(241)

혁명 후 과학자들은 상이한 세계에서 일하게 됨(241)

<<서양고전강독 4>>

제8강 '과학혁명의 구조': 혁명과 진보

- 11. 혁명의 비가시성
- 12. 혁명의 해결
- 13. 혁명을 통한 진보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11. 혁명의 비가시성

교과서의 왜곡

과학적 권위의 원천은 교과서, 대중과학서적, 과학철학적 저작(243)

이미 풀어진 문제, 데이터, 이론, 공약된 패러다임 등을 논의(243)

매 과학혁명때마다 바뀌며 이전 혁명의 역할과 존재를 가림(244)

역사 감각을 절단하고 선택과 왜곡을 통해 고정된 전형으로 연구 묘사(244)

과학과 과학사를 직선적 누적적으로 묘사(246)

당대의 정보에 또다른 사실 개념 법칙 이론들을 하나씩 과학자들이 추가해왔다는 듯이 과학혁명을 부정(248)

돌턴이 일정성분비의 법칙에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기술(246)

돌턴은 문제자체를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일시에 인식하며 비로소 연구 완성(246)

기상학적 질문과 개념을 화학에 적용하여 연구방향을 재배치하고 옛 데이터에 새 질문하고 새 결론을 이끔(246)

갈릴레오도 낙하물체에 관해 중력은 커녕 힘 자체에 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나 뉴턴의 혁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과학발전을 일직선화(247)

일정한 힘에 의한 일정한 가속도는 뉴턴의 맥락에서야 비로소 제기(249)

보일의 혁명

기존 사실이 아니라 재정식화에 의한 새 사실들과 더불어 새 이론 출현(249)

17세기 보일의 언어상 원소 정의에는 애초 과학적 내용도 논리적 설명도 별로 없음(251)

그러나 보일은 화학적 조작 및 이론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화학과 화학자의 세계도 변화(251)

라부와지에의 화학혁명 은 보일의 개념에 대해 현대적인 형태와 기능을 부여(251)

12. 혁명의 해결

혁명 전야

정상과학연구자는 퍼즐풀이자일뿐 패러다임의 검증가는 아님(254)

퍼즐풀이가 거듭되게 실패하면 위기 초래, 대안 [이론]이 출현한 상태에서 패러다임의 검증(254)

검증은 패러다임과 자연과의 대비가 아니라 두 경쟁 패러다임 사이의 경합(254)

정상과학의 퍼즐풀이는 데이터와 이론의 일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256)

따라서,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의하면 모든 이론은 반증되어야 함(256)[그러나 반증되지

않음]

패러다임 사이의 경쟁은 증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님(258)

논쟁은 과학의 기준, 정의, 문제 목록에 관한 이견(259)

오히려 옛 패러다임도 새 도전에 대응하여 더 명료화 가능 (티코 브라헤의 지구중심설, 플로지스톤의 후기 수정안)(270)

옛 패러다임에게는 무리없지만 새 패러다임은 못푸는 문제도 있음: 수소 연소반응, 탄소를 이용한 가용성 기체제조 경우는 플로지스톤에 유리하고 라브와지에에 위배(271)

논증과 반대논증이 맞서면 전통 쪽으로 논쟁이 기울어짐: 지상계 운동에 대한 전통이론 속의 코페르니쿠스의 불리함, 전통적 기계적 전통 속의 뉴턴 중력이론의 불리함, 금속의 공통성을 이미 설명한 프리스틸리의 전통속에서의 라부와지에의 불리함(271)

초기에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문제해결 이나 증거제공없이 미래에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을 이미 가짐(272)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단일논증은 애초 존재하지 않으며 새 패러다임은 처음에 지지자가 거의 없음(273)

중력의 기원

[뉴턴처럼] 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데카르트처럼] 인력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가?(259)

뉴턴 이론의 수용 이후에 인력의 원인에 관한 질문이 과학에서 사라짐(259)

인력의 원인에 관한 질문은 일반 상대성이론이 해결(259)[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

아인슈타인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간 시간 물질 힘 등 개념 상의 그물망이 변형(260)

금속의 유사성

프리스틸리는 금속의 유사성은 플로지스톤 때문(259)

라부아지에에 플로지스톤에 기반한 질문과 풀이를 방해하여 소멸시킴(259)

그러나 20세기 화학에서 유사성 질문은 재등장(259)

지동설과 천동설

톨레미 추종자들에게 지구는 고정된 [우주중심]위치에 있는 것,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260)

코페르니쿠스는 문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구와 운동의 의미를 혁신(261)

게슈탈트 전환

혁명이라는 분수령을 가로지를 수 있는 의사소통은 부분적인 것(260)

경쟁 패러다임의 제안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연구 수행(261)

같은 방향 같은 관점에서도 서로 다른 것을 보며 대상들이 서로 맺는 다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봄(261)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은 [종교적] 개종(262)

혁명은 공약불가능한 것들 사이의 이행(262)

혁명은 게슈탈트 전환에서와 같이 일시에 일어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262)

혁명의 어려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한세기간 소수의 전향자, 뉴턴의 연구도 프린키피아 이후 반세기간 대륙에선 불수용, 프리스틸리는 평생 산소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음, 켈빈경도 전자기 이론을 인정하지 않음(262)

혁명의 용이성

다윈의 '종의기원', "젊은 신진 자연과학자들에게 기대를 건다"(263)

플랑크의 '과학적 자서전',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반대자들이 죽고 새세대가 성장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263)

케플러의 선택

케플러를 코페르니쿠스로 전향시킨 것은 태양숭배사상, 과학자로서의 생애, 성격적 특성, 국적, 스승의 명성 등으로부터 영향(265)

동시에, 간결성, 적합성, 단순성과 같은 미적호소력, 미적고찰도 중요(269)

혁명 후의 해결실패

새 패러다임의 지지자들은 위기를 초래했던 문제들의 해결을 주장(265)[과연?]

플랑크와 보어의 성공은 다수의 물리학자들을 단기간에 납득(266) [그러나 많은 문제 야기]

새 패러다임의 문제해결의 주장은 만족스럽지 않음(267)

코페르니쿠스는 더 정확하지 않았고 행성위치 예측 개선과 달력개량에 실패(267)

빛의 파동 이론도 초기 여러해 동안 위기의 주원인이었던 편광효과의 해결에 실패(267)

라브와지예가 새 기체들의 종류가 늘어나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처 실패, 그러나 프리스틸리가 예전에 성공적으로 이미 설명(270)

혁명의 완성

이후 코페르니쿠스는 행성과 지구의 유사성(달의 산), 금성의 위상변화(망원경 관측), 우주의 광활함(무수한 별 관측)이 확립되면서 많은 전향자들을 포섭(267)

프레넬의 빛의 파동이론의 결정적 증거는 (새 패러다임이 수용되고 한참 뒤인) 원형원반 그림자 중심에 흰점의 존재, 일반상대성 이론은 [역시 한참 뒤의] 수성근일점 운동의 설명(268)

지구자전을 입증한 푸코진자나 빛이 물보다 공기중에서 더 빠르다는 피조의 실험 같은 결정적 실험은 논쟁 중이 아니라 혁명 이후의 교과서에서 등장(270)

개량하고, 가능성을 탐구하고, 설득력있는 논증들의 수효와 강도 증강으로 더 많은 개종 발생(273)

새 패러다임에 기초한 더 많은 실험 기기 논문 서적으로 새 방식을 더 채택되며 소수의 나이 많은 저항만이 남음(273)

13. 혁명을 통한 진보

전 패러다임 시대나 혁명의 시대에는 발전에 대한 의심이 표출(279)

진보가 분명하고 확실해 보이는 것은 정상과학 기간(279)

과학자들은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는 동료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문제들에 집중(281)

과학교과과정은 대학원생들에게까지도 [논문은 읽지 말고] 교과서만 읽으라고 요구(282)

따라서 막상 위기가 발생하면 기존 과학 훈련은 새 접근법에 속수무책(283)

혁명 후에는 옛 패러다임과 그에 따르는 책과 논문들도 동시에 모두 거부(284)

과학은 혁명을 통해 진보(284)

혁명은 과학자공동체의 관심영역을 좁혀 전문성을 높이고 기타 그룹과는 의사소통을 저해(288)

과학 발전은 무엇인가를 향한 진화가 아님(289)

과학 발전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진화(289)

1859년 다윈의 [우연에 근거한] 자연선택적 진화론이 출판되었을때 이미 라마르크, 체임버스, 스펜서 그리고 독일자연철학자들이 목표지향적(목적론적) 진화론의 개념과 증거를 누적시켜 옴(290)

특정 목표가 없는 진화 발전 진보는 수용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적 개념(291)

그러나, 자연선택적 진화론이 확립된 것처럼, 과학발전의 전 과정은 설정된 목표, 영구적으로 고착화한 과학적 진리 없이도 진화할 수 있음(과학의 진화적 관점)(291)

<<서양고전강독 4>>

제9강 역사란 무엇인가? 1

저자 소개

책 소개

목차

1.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2. 사회와 개인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저자 소개

우리나라에서는 E. H. Carr로 알려진 이 책의 저자 “테드” 카Edward Hallett “Ted” Carr (1892 – 1982)는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후 1916년 영국의 외교관으로서 경력을 쌓아 파리평화회담에서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였다. 1936년 영국 외무성을 떠나 학계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1941년부터 46년까지는 영국 타임지의 부편집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주의와 소련과의 동맹을 강조하였다. 14권에 이르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를 1982년까지 집필하는 동안, 이 책 “역사란 무엇인가?”는 1961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일련의 초청강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책 소개

중세의 어둠을 깨고 유럽의 16-17세기 근대 과학혁명이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프랑스대혁명으로 이어지고, 이후 헤겔 맑스 레닌의 사회주의 운동과 러시아 중국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20세기를 이성의 진보 시대라고 저자는 확신한다. 과학이 이성의 등불로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간 이해의 진보를 이루어 왔듯이, 미래에도 과학은, 두 세계대전의 참혹한 현실을 넘어, 여전히 인간 이성의 등불로서 사회와 역사를 진보적 미래로 밝혀줄 것이라고 이 책은 주장한다.

목차

1.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2. 사회와 개인
3.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
4.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5. 진보로서의 역사
6. 지평선의 확대

1.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실증주의 역사

과학으로서의 역사(18)

사실을 확인하고 결론을 도출(18)

경험주의적 전통; 주체와 객체의 분리, 사실들은 관찰자와 독립적 수동적, 관찰자는 자료를 수용 처리, 사실은 결론으로부터 분리, 역사는 확인된 사실(18)

1830년대 랑케(1795-1885, 독일 역사가); 역사가의 임무는 단지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17)

액턴(1834-1902, 영국 역사가) "케임브리지 근대사"; 워털루 전투는 프랑스인과 영국인, 독일인과 네델란드인을 똑같이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18)

철학이 있는 역사

과거에 관한 사실 모두가 역사적 사실이 아님(19) [역사의 사실이 아닌 과거 사실 존재]

역사가는 [년도와 장소 등이]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받지 못함(20)

정확성은 역사 보조학문(고고학, 금석학, 고전학, 연대측정학)의 임무(20)

역사란 논박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편찬하는 것(우표수집, 고물수집, 백과사전 편찬)도 아님(26)

기초적인 사실들은 역사가의 원료일 뿐(21)

기초적인 사실들은 역사가의 선택적인 결정에 좌우됨(21)

역사가는 필연적으로 선택해야함(22)

사실들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음(21)

사실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에만 이야기함(21)

역사가 되려면 역사가들이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인정해주는 명제나 해석이 존재해야 함(23)

역사적 사실로서의 지위는 해석의 문제(23)

역사는 분실된 조각들이 많은 거대한 조각 그림(24)

그 조각들은 특정 견해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24)

배러 클러프(1908-1984, 영국역사가); 역사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 널리 승인된 일련의 판단들(25)

역사의 문서

법령들, 조약들, 지대 대장, 보고서, 공적 통신문, 서신, 일기(27)

작성자가 [현재] 생각한 것(27)

작성자가 [과거에]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27)

작성자가 일어나야만 했다고 생각하거나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것(27)

작성자가 생각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27)

작성자가 생각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27)

사실들과 문서들은 스스로 역사를 구성하지 않음(31)

역사

역사에 철학이 필요 없는 척하는 것은 나체촌 주민들처럼 남의 눈을 끌어보려는 짓(33)

크로체; '모든 역사는 현대사(당대사)'; 역사는 현재의 눈을 통하여 과거를 바라보는 것, 역사가의 임무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34)

칼 베커(1873-1945); 역사의 사실들은 역사가가 창조할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음(34)

쿨링우드(1889-1943, 영국 철학자); 모든 역사는 사유의 역사(35)

오크셔트(1901-1990, 영국 정치학자);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유일한 길(35)

역사의 사실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음(36)

역사가는 마음과 행위의 배후를 이해해야 할 필요(38)

현재의 눈을 통해야만 과거를 조망(39)

언어의 사용은 역사가가 중립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40)

그러나 역사의 사실들에 대해 객관적인 해석은 가능(42)

역사가는 사실들의 비천한 노예도 난폭한 지배자도 아님(46)

역사란 해석에 맞추어 사실들을 만들고, 사실에 맞추어 해석을 만드는 끊임없는 과정(46)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46)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46)

역사란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 사이의 대화(52)

2. 사회와 개인

역사가의 배경

루이스 네이미어(1888-1960, 폴란드 출신 영국 역사가); 1차 세계대전 직후 보수주의 부활 시절 동안 실패한 혁명에 대한 역사적 연구(56)

정치에 이념이 침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실패한 혁명의 교훈을 상기(57)

이렇듯, 역사가의 입장은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뿌리(58)

마이네커(1862-1954, 독일 역사가); 비스마르크 시대에서 독일 민족주의를 보편주의의 최고 형태로 간주(59),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을 서술하며 정치를 전투장으로 묘사(59), 뒤이어 나치 시대에선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사이에서 동요(60), 독일 패망 이후엔 역사는 맹목적이며 우연에 좌우된다고 역설(60)

마이네커는 당대의 시기들을 역사적 과거들에 투영(60)

역사책의 저자보다 출간 일자나 집필 일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설(62)

역사가 유리하게 진행하는 듯 보였던 19세기 동안 영국 역사가들은 진보를 강조(63)

1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쇠퇴 사회의 특유 이데올로기인 토인비의 순환적 역사관 등장(63)

토인비 이후엔 역사엔 일반 패턴이 없다는 선언(63)

역사를 연구하기에 앞서 역사가를 연구하고, 역사가를 연구하기에 앞서 그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연구(64)

역사가는 개인이면서 또한 역사와 사회의 산물(64)

역사의 개인

개인의 강조는 역사의식의 원시적 단계(65)

볼셰비키 혁명의 사회적 원인보다는 니콜라스 2세(1894-1917 재위)의 어리석음 때문, 혹은 독일이 레닌을 러시아에 귀국시키고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개인의 강조(68)

두 세계대전을 국제체제의 근원적 붕괴로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빌헬름 2세와 히틀러의 개인적인 사악함이 빚어낸 것으로 보는 것도 개인의 강조(68)

심리주의에서도 모든 사회적 역사적 문제들을 개인 행동으로 분석(69)

그러나, 환경 역사 정치 사회 문제에 무심한 심리학자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할 것(70)

고립된 채 행동하는 개인적 행동이나 동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님(75)

역사의 사실이란 개인적 의도와는 모순되는 사회적 상호관계와 힘들에 관한 사실(75)

역사가들은 개인적 행동 생각 동기의 배후를 연구(75)

사회에 저항하고 대립하며 사회적 권위에 도전하는 개인도 그 사회의 산물(76)

역사에서의 반역자의 역할도 [위대한] 위인의 역할만큼 제한적(76)

위인은 현저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77)

위인을 역사 밖 요술 상자 속의 잭[Jack in the box]으로 생각하면 안됨(78)

헤겔; 위인이란 자기 시대의 의지를 표현하여 그 시대에 전달하고 완성하는 그 시대의 정수이자 본질(78)

위인은 기존 세력의 대변자이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새 세력의 대변자(78)

크롬웰이나 레닌은 자신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세력을 형성한 인물(79)

위인은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자, 세계와 사유를 변화시키는 사회세력의 창조자(79)

사회와 개인의 대립을 가정하는 것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혼란 시키려는 미끼(79)

역사

추상적이고 고립된 개인들간의 대화가 아님(79)

역사가와 그의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79)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79)

오늘의 사회와 어제의 사회 사이의 대화(79)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찾아내는 주목할 만한 것에 관한 기록(79)

과거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현재 사회에 대한 인간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79)

과거는 현재에 비추어질때에만, 현재도 과거에 비추어질때에만 이해 가능(79)

<<서양고전강독 4>>

10강 역사란 무엇인가? 2

3.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

4.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3.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

사회과학자, 역사가, 자연과학자의 목표와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99)

역사가 과학이 아니라는 주장

- a. 역사는 특수하고 특정한 것, 과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88)
- b. 역사는 교훈[당위성, 가르침]을 주지 않음(88)
- c. 역사는 예언을 할 수 없음(88)
- d. 역사는 주관적(88)
- e. 역사는 종교와 도덕을 포함(88)

a. 역사의 특수성

역사가의 진정한 관심은 특수한 것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것(90)

1차세계대전 원인의 일반화; 비밀 외교관들의 실책(20년대),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경쟁(30년대) 등(90)

액턴(1921-1994, 영국 역사가); 역사가를 역사적 사실의 수집가와 구별해주는 것은 일반화

다만, 현재의 사회학은 지나친 이론화 추상화로 무의미한 일반화에 몰두(93)

b. 역사의 교훈

일반화는 역사의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것(94)

17, 18, 19세기 서유럽은 구약성서시대의 교훈으로부터 영국 청교도혁명을 이해(96)

19세기 영국 지배계급은 아테네를 새민주정의의 교훈적 본보기 취급(96)

대영제국 건설자들은 로마제국의 교훈 연구(96)

러시아 혁명세력은 프랑스혁명과 [실패한] 1871년 파리코뮌에서 가르침 받음(96)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운다는 것(96)

역사의 기능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96)

c. 역사의 예언

역사가는 일반화를 통해 미래에 관한 타당하고 유용한 일반 지침 제공(95) [일종의 예언]

그러나 특정 사건 들에는 우연이 개입(97)

d. 역사의 주관성

카를 만하임; 경험을 포괄, 수집 정리하는 것은 관찰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짐(99)

역사적 관점은 상대적이거나,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는 거의 반복되지 않음(99)

프랑스 혁명이 나폴레옹에 의해 끝장났다는 것을 알고 볼세비키는 나폴레옹을 닮은 트로츠키를 불신하고 가장 닮지 않은 스탈린을 신뢰(100)

결과들이 예견되면 미리 조심하여 행동 수정(100)

현대물리학의 불확정성, 비결정론, 시공간의 상대성을 역사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102)
[역사의 주관성 반대]

그러나, 역사가와 그의 사실은 분리되지 않은 상호의존 과정(103)

e. 종교와 도덕

역사가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도덕적 판단보다는 그 업적에 더 관심(106)

그러나,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체임벌린(1869-1940, 2차세계대전 직전 영국수상), 메카시 등에 대한 공격은 도덕적 가치판단을 포함(110)

19세기 서구국가들에 대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화는 그들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도덕적 판단이 현재 유행(113)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그 자체가 역사의 산물(114)

역사적 행위를 판단하게 해줄 수 있는 추상적 초역사적 기준(도덕, 신, 이성)은 불가능(115)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가 비역사적이며 역사의 본질과 모순(116)

역사가는 선이나 악 같은 절대적 용어보다는 진보적 반동적과 같은 비교적 용어로 도덕적 판단(116)

평등 자유 정의 자연법 등과 같은 절대적인 것들도 시대 혹은 지역에 따라 변화(116)

모든 집단은 자신만의 역사적 가치 소유(116)

모든 집단은 거북한 가치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비민주적, 전체주의적, 비영국적, 비미국적 등 무례한 형용사도 사용)(116)

진정한 역사가는 모든 도덕 가치의 성격이 역사적임을 인정(116)

과학으로서의 역사

역사가 과학이 아니라는 주장은 편견(118)

역사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더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118)

역사학은 과학이 너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잡학이 아님(118)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는 이는 역사학의 성과와 가능성을 무시(119)

과학자 사회과학자 역사가는 분야는 다르지만 동일한 연구 중(119)

역사가와 자연과학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왜(why)를 질문(119)

4.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우연성과 결정론

2차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전쟁을 원했기 때문이 아님(121) [히틀러의 우연한 성격이 전쟁 원인 아님]

역사의 결과들은 맹목적인 운명의 산물도 아님(122)

역사의 법칙, 역사의 원인[결정론]도 유행에서 사라짐(123)

칼 포퍼(1930년대 빈(비엔나)학파 출신); "열린사회의 적들"과 "역사주의의 빈곤"에서 헤겔 및 30년대 영국 좌파 맑시즘의 결정론에 반발(127)

1954년 이사야 벌린 경; "역사적 필연성"에서 인간행위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은 자유의지의 부정이라며 헤겔과 맑스를 비판하며 우연성을 강조(128)

역사 연구방법의 큰 특징

a.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원인들을 제시(124)

b. 수집한 원인들의 목록 정리하여 원인들의 위계질서 수립(124)

기번처럼 로마제국의 쇠퇴와 몰락을 야만성과 종교의 승리로만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원인(124)

19세기 영국의 번영을 입헌적 자유주의적 정치제도의 탓으로 보는 것도 경제적 원인을 무시하는 원인(125)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다양한 원인들; 러시아의 잇단 군사적 패배, 경제붕괴, 효과적인 선동, 차르정부의 농업실패, 프로레타리아의 페트로그라드 공장지대 집결, 레닌의 결심과 반대편의 비결심(124)

역사가는 수많은 원인들을 단순화하고 상하관계를 결정하여 질서와 통일을 부여(126)

역사적 결정론

원인들이 같다면 결과도 동일(129)

인간 행위가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은 불가능(130)

자유 의지와 결정론간에는 현실적 딜레마가 존재(131)

인간의 모든 행동은 관점에 따라 자유롭기도하고 동시에 결정되어 있기도 함(131)

역사가는 자유 의지를 거부하지않으나 '필연적'이란 여러 요인들의 결합이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뜻(132)

인간행동의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역사가의 특별한 기능(132)

반 볼셰비키 주장

스틀리핀(1862-1911, 1905 러시아혁명 실패 후의 차르정부 수상)의 농업개혁을 성공을 가정해보라는 주장(134)

러시아가 전쟁[제1차세계대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가정해보라는 주장(134)

케렌스키(1881-1970, 1917년 러시아 2월혁명 후 임시정부의 수상, 볼셰비키 혁명으로 축출)정부의 성공을 가정해보라는 주장(134)

볼셰비키 대신에 멘셰비키(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내의 소수파)나 사회혁명당(농민 기반의 볼셰비키 반대정당)의 혁명을 가정해보라는 주장(134)

이런 가정의 강요는 감정적이며 비역사적 반응,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반대 운동(135)

클레오파트라의 코

역사란 우연의 연속이라는 이론(135)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에 우연히 빠져 악티움 해전에서 패전 후 자살하게 되었다는 이론(135)

비야지드(1347-1403, 오스만 제국의 술탄)가 [우연한] 관절염으로 중앙유럽으로 진격할 수 없었다는 주장(136)

그리스 국왕 알렉산드로스가 1920년 가을 원숭이에 [우연히] 물려 사망하여 25만명이 죽었다는 주장(136)

로마인들에게 정복당한 후 그리스인들의 주장; 알렉산더가 [우연히]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다면 로마가 그리스에 복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137)

역사의 우연을 주장하는 시기는 불안과 근심이 확산하는 시기(1914년 이후의 영국)(138)

우연이 유행하게 된 것은 실존은 어떠한 원인도 이유도 필연성도 없다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등장과 시기 일치(138)

마이네커; 독일의 재앙은 황제의 허영, 힌덴부르크(1847-1934, 군인)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이 된 것, 히틀러의 편집광적 성격 등 우연한 사건들의 결과(139)

그러나, 시험성적은 모두 운이라는 생각은 열등반 사람들에게나 유행(139)

우연은 중요하지 않음(근본적 변경 불가능), 한 우연은 다른 우연에 의해 상쇄, 우연은 개인의 성격으로 설명가능하다는 등의 맑스의 해명도 불충분(140)

역사에서의 우연은 우리의 무지의 표지라는 견해도 부적절(141)

우연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더 폭넓은 패턴과 합쳐질 수 있다는 주장도 불충분한 답변(141)

역사가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게으르거나 저급한 지적 활동(141)

우연적인 것은 합리적 해석이나 중요 원인들에 대한 역사가의 순위에 끼어들지 못함(142)

역사가는 합리적 설명과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내어 결론 도출(143)

과학성과들도 부적당한 것은 버리고 적당한 것을 골라내어 논리적 합리적으로 꿰어내는 것(143)

교통사고의 원인이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밖으로 [우연히] 나갔기 때문이 아님(144)

전후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가의 능력(145)

헤겔의 "법철학";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146)

합리적인 원인은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인이며 교훈을 주고 이해를 심화(147)

<<서양고전강독 4>>

11강 역사란 무엇인가? 3

5. 진보로서의 역사

6. 지평선의 확대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5. 진보로서의 역사

역사의 진보

신비주의; 역사의 의미를 역사 밖 신학 내세론 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151)

냉소주의; 역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견해(151)

고대의 순환론적 관점; 밝은 미래 전망은 과거 황금시대로의 복귀에 대한 전망(152)

중세의 유대-기독교적 목적론적 역사관; 역사가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역사의 종말 설정(153)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 역사는 인간세계 완성의 목적을 향한 진보, 영국의 번영과 자신감 반영(153)

역사란 획득된 기술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진보(157)

액턴; 역사의 진행은 자유를 향한, 또한 자유의 이해를 향한 끊임없는 진보(159)

그러나, 한 집단의 쇠퇴는 다른 집단의 새 전진(161)

진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적 진보가 아님(161)

인류의 목적들은 역사과정 내에서 발생, 역사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164)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무한한 진보(한계에 굴복하지 않는 진보)(164)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우리가 전진함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 발전(167)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 진리라는 식의 상대주의적 견해는 거부(167)

역사가의 객관성

중요성에 관한 올바른 기준을 적용하여 올바른 사실을 선택한다는 뜻(169)

사회적 역사적으로 제한된 시야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169)

완전한 객관성이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169)

시야를 미래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169)

과거를 더 심원하고 더 지속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169)

객관성이란 고정불변의 판단 기준이 아닌 미래에 역사과정이 전진함에 따라 발전하게 되는 기준(178)

역사의 진보는 사실과 가치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179)

역사가는 사실과 해석, 사실과 가치 사이에서 균형(180)

객관적 역사가란 사실과 가치의 상호작용을 깊이 통찰(179)

역사

과거와 현재의 대화(169)

과거의 사건들과 미래의 목적들 사이의 대화(170)

역사가의 과거에 대한 해석, 중요한 것에 대한 선택은 새 목표들의 출현에 따라 발전

(170)

새 해석은 예전 해석을 포함하며 대체(170)

역사학은 진보적 사건들의 확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진보적 학문(170)

역사는 그 본질상 변화 운동 진보(180)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왔다는 믿음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믿음(181)

미래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사회는 과거의 진보에 대한 관심도 포기(181)

6. 지평선의 확대

역사의식의 시대

역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183)

세계적 파국이 예언되는 현 시대이나 우리는 이겨내어 역사는 계속될 것(183)

20세기 중반은 과학적 발견과 발명의 가장 심원하고 가장 광범위한 변화와 사회혁명의 시대(183)

역사는 이성의 발휘를 통해서 환경을 이해하고 극복해온 인간의 오랜 투쟁(184)

이 시대는 모든 시대중 가장 역사 의식이 강한 시대(184)

어둠 속의 가냘픈 빛이 앞을 밝혀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희미한 어둠 속을 뒤돌아보는 시대(185)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은 전통적 관습체제를 이성과 자연법칙에 기반한 단순한 규칙들로 대체하고서 미국 혁명으로 연결(185)

미국 혁명은 계획적 의식적으로 국가를 조직한 역사상 최초의 사례(186)

17-18세기는 세계의 법칙들을 이성으로 의식하고 인간 권리를 인식(186)

18세기 후반부터 헤겔은 신의 섭리와 이성을 세계정신으로 표상(186)

애덤 스미스의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헤겔이 말한 이성의 간계(187)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의 인간의 자기의식을 발현(187)

역사의 발전은 자유의 개념을 향한 발전(187)

맑스

그러나 1815년 프랑스 왕정복고의 암울함 속에서 헤겔은 정치적으로 소심화(187)

애덤 스미스와 헤겔의 제자인 맑스는 합리적 자연법칙의 개념에서 출발(187)

맑스는 실천적 구체적 역사 이해를 위해 a. 경제법칙적 이해 b. 변증법적 사유 c. 계급투쟁 제시(188)

프로레타리아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부르주아로부터 모든 자본을 빼앗아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으로 집중시킬 것이라고 공언(188)

그러나 1848년 독일 혁명의 실패로 역사 발전에 대한 심각한 좌절(189)

20세기에 레닌은 노동자 대중들에게 정치적 신념으로서 계급의식 확산(189)

프로이트

프로이트도 이성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190)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관점에서 다루는 반동이라며 맑스주의자는 프로이트를 비난(190)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근원을 폭로하여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확장(190)

이성 영역의 확장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인간 능력의 증대(190)

프로이트의 혁명적 진보적 업적은 맑스의 작업을 보완(190)

사람들의 행동을 당사자들이 믿고 있는 동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환상에 종지부(191)

역사가에 대한 프로이드의 가르침; 주제, 시대, 사실에 대한 선별과 해석을 이끈 동기를 민족적 사회적 배경,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념과 함께 의심하고 질문해야 함(191)

역사가는 사회나 역사 외부에 있는 초연한 개인이 아님(191)

법칙에서 계획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자유방임 경제에서 관리 경제로의 이행(192)

[수요 공급의] 경제법칙에 따라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경제의 몰락(192)

석유나 비누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변동하지 않음(192)

[필수품의 수요는 늘 일정 → 누적된 과잉생산으로 기업 파산 → 대량 실업 → 재고 심화 → 공황 발생 → 제국주의 전쟁; 주기적 순환]

멜서스의 인구법칙도 폐기(193) [인구과잉으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부자만 생존가능]

자유방임에서 계획으로의 전환은 무의식에서 자기의식적 전환과 유사(193)

계획적 자기의식적 전환은 경제적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인간 능력에 대한 신념(193)

자기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인간 능력의 증대가 진보(194)

과학에서도 법칙보다는 실용적 가설에 더 관심(194)

이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도 변화(194)

이성의 합리적 과정이 사회 속에 적용될 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혁도 시작(195)

교육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기회를 확장 시키면서도 사회적 획일성 초래(197)

교육은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보려는 의식적 합리적 과정(197)

기업이나 정당은 [교육 등을 통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중의 비합리주의를 이용(197)

지배집단은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하기위해 이성을 악용(198)

그러나, 인쇄술의 발명이 잘못된 견해의 확산에 기여?(199)

자동차의 출현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초래?(199)

원자력의 발전이 인류의 파멸을 초래?(199)

이런 발전은 희생 손실 위험을 초래하나 역사적 진보의 혁명적 사례들(200)

15-16세기 신대륙 발견으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의 세계 중심이동(200) [이후 다시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동북아시아로 세계 중심이 이동 중]

프랑스혁명은 [미국혁명을 통해] 신세계와 구세계간의 균형 초래(200)

20세기에는 세계의 중심이 서유럽을 떠나 북미대륙으로 이동(200) [현재는 다시 동북아시아로]

과거에도, 1902년 영일동맹으로 아시아 최초로 일본이 유럽 열강에 편입된후 러시아에 승리(201)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 이후 페르시아 터키 중국에서도 혁명(201)

1차세계대전(유럽내전) 직후 중국 인도 아랍의 민족주의(201)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혁명 진행 중(201)

기술적 산업적 방식의 확산으로 교육과 정치의식이 확산되며 진보 중(201)

20세기의 혁명은 이성의 확대(202)

그러나, 영국과 영어 사용권 국가의 비중 감소(202)

중세 유일의 이성적 기관은 기독교 교회(202)였고 사회 정치 역사의식은 소수 선진국가에서도 불과 최근 200년 이내의 일(203)

18세기의 역사도 여전히 엘리트의 역사(203)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에 이르러서야 국민공동체 전체의 역사관 형성(203)

20세기에야 민중이 역사가의 관심대상이 되며 민중적 역사관 탄생(203)

위대한 역사 저작 니덤(1900-1995 영국과학자)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도 케임브리지 사학과와는 무관(205) [영국 역사학자들의 여전히 유럽중심주의 비판]

영국 과학철학자 포퍼는 이성을 옹호하면서도 여전히 보수적(209) ["열린사회의 적들"에서 맑시즘 비판]

학문 사회 역사 인간사에서 진보란 현존 질서에 대한 이성적 근본적 도전(210)

영어권 역사가 사회학자 정치사상가들도 진보적 도전을 위한 용기를 내길 바람(210)

급진적이고 원대한 이념을 믿지 말라는, 혁명의 냄새가 나는 것은 모조리 피하라는, 가능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전진하라는 훈계는 전부 무지(211)

그런 무지는 영국이 진보에 뒤처질까하는 불안감, 무기력하게 향수에 빠져들 불안감이 원인(211)

그러나 난 여전히 낙관론자, “그래도 역사는 움직인다”(211)

<<서양고전강독 4>>

12강 서양미술사 1

1. 신비에 싸인 기원--선사 및 원시 부족들: 고대 아메리카
2. 영원을 위한 미술--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3. 위대한 각성--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그리스
4. 아름다움의 세계--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그리스와 그리스의 세계
5. 세계의 정복자들--1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 불교, 유대교 및 기독교 미술
6. 기로에 선 미술--5세기에서 13세기까지: 로마와 비잔티움
7. 동방의 미술--2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과 중국
8. 혼돈기의 서양 미술--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
9. 전투적인 교회--12세기
10. 교회의 승리--13세기
11. 귀족과 시민--14세기
12. 현실성의 정복--15세기 초
13. 전통과 혁신 I --15세기 후반: 이탈리아
14. 전통과 혁신 II--15세기: 북유럽

목차

서문--서론: 미술과 미술가들에 관하여

1. 신비에 싸인 기원--선사 및 원시 부족들: 고대 아메리카
2. 영원을 위한 미술--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3. 위대한 각성--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그리스
4. 아름다움의 세계--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그리스와 그리스의 세계
5. 세계의 정복자들--1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 불교, 유대교 및 기독교 미술
6. 기로에 선 미술--5세기에서 13세기까지: 로마와 비잔티움
7. 동방의 미술--2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과 중국
8. 혼돈기의 서양 미술--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
9. 전투적인 교회--12세기
10. 교회의 승리--13세기
11. 귀족과 시민--14세기
12. 현실성의 정복--15세기 초
13. 전통과 혁신 I --15세기 후반: 이탈리아
14. 전통과 혁신 II--15세기: 북유럽
15. 조화와 달성--16세기 초: 토스카나와 로마
16. 빛과 색채--16세기 초: 베네치아와 북부 이탈리아
17. 새로운 지식의 확산--16세기 초: 독일과 네덜란드
18. 미술의 위기--16세기 후반: 유럽
19. 발전하는 시각 세계--17세기 전반기: 가톨릭 교회권의 유럽
20. 자연의 거울--17세기: 네덜란드

21. 권력과 영광의 예술 I--17세기 후반과 18세기: 이탈리아
22. 권력과 영광의 예술 II--17세기 말과 18세기 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23. 이성의 시대--18세기: 영국과 프랑스
24. 전통의 단절--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 미국 및 프랑스
25. 끝없는 변혁--19세기
26. 새로운 규범을 찾아서--19세기 후반
27. 실험적 미술--20세기 전반기
28. 끝이 없는 이야기--모더니즘의 승리 / 또 다른 추세 변화 / 변모하는 과거

서양미술사 1

1. 신비에 싸인 기원--선사 및 원시 부족들: 고대 아메리카
2. 영원을 위한 미술--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3. 위대한 각성--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그리스
4. 아름다움의 세계--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그리스와 그리스의 세계
5. 세계의 정복자들--1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 불교, 유대교 및 기독교 미술
6. 기로에 선 미술--5세기에서 13세기까지: 로마와 비잔티움
7. 동방의 미술--2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과 중국
8. 혼돈기의 서양 미술--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
9. 전투적인 교회--12세기
10. 교회의 승리--13세기
11. 귀족과 시민--14세기

12. 현실성의 정복--15세기 초

13. 전통과 혁신 I --15세기 후반: 이탈리아

14. 전통과 혁신 II--15세기: 북유럽

1. 신비에 싸인 기원--선사 및 원시부족들

들소 말의 동굴벽화는 그림과 현실 동일시의 결과(40)

2. 영원을 위한 미술--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크레타 섬의 미술(기원전 천년경)(75)

이후 그리스 종족 등에 의해 정복(75)

3. 위대한 각성--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그리스

그리스 신전(기원전 600년경)(77)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신전 (기원전 450년)(82)

그리스 미술혁명: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형태(82)

전통과 전설을 의문시하며 사물의 본질 탐구(82)

올림피아 신전내 그리스 청동조각상은 중세에 녹여져 사라짐(90)

아테네 조각가 미론의 <원반던지는 사람>(기원전 450년경, 로마시대의 대리석 복제품 현존)(90)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벽에 있는 아테나 여신 축제 행진 모습 <전차경주차>(기원전 440년)(91)

신전 기둥은 도리아 양식: 간결한 기둥과 쿠션모양의 윗부분(91)

소크라테스: "미술가들은 감정이 육체의 움직임에 미치는 과정을 정확히 관찰함으로써 영혼의 활동을 표현해야한다."(94)

도자기에 감정을 표현: <울리시스와 그를 알아본 늙은 유모>(기원전 5세기)(94)

4. 아름다움의 세계--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그리스와 그리스의 세계

자유를 향한 미술의 위대한 각성(기원전 520-기원전 420년경)(99)

그러나 미술가들은 장인으로서 멸시의 대상(99)

도리아 양식에서 이오니아 양식(날렵한 기둥과 소용돌이형(나선형) 측면을 가진 기둥머리)(99)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으로 종말(99)

이상화된 인체: 헤르메스 신이 어린 디오니소스를 팔에 안고 놓고있는 모습(기원전 340년)(103)

이상화된 인체: <밀로의 비너스>(기원전 200년경)(105)

헬레니즘: 알렉산더 이후의 시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티오크, 소아시아의 페르가몬 등이 중심지(108)

헬레니즘 미술은 조화미와 세련미보다는 거칠고 격렬함 강조(108)

도리아와 이오니아 이후의 코린트 양식: 기둥의 윗머리에 이오니아식 소용돌이에 추가로 화려한 잎사귀 모양 첨가(108)

페르가몬의 제우스 대리석 제단에 나타난 <신들과 거인과의 싸움>(기원전 164-156년경)(108)

부자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미술작품을 수집 복제(111)

미술가들의 생애와 기이한 행동들이 책자들로 제작(111)

기원 후 79년 베수비오 화산폭발로 매몰된 도시 폼페이에는 거의 모든 집의 벽에 틀에 끼워진 (복제)그림 존재(113)

<풍경>(1세기경): 먼곳은 작고 간단하게 가까운 곳은 크고 자세하게 그림으로서 공간의 깊이 표현(114)

그러나 거리에 따른 수학적 방법(원근법)이 없어 구도의 틀이 갖춰지지 못함(226)

5. 세계의 정복자들--기원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 불교 유대교 및 기독교 미술

로마: 도로 수로 공중목욕탕 콜로세움(원형경기장, 기원후 80년경)(118)

원형경기장 1층은 도리아 양식, 2층은 이오니아 양식, 3,4층은 코린트 양식의 반원 기둥(118)

아치의 사용: <개선문>(14-37년경)(119)

아치형 돔: <판테온> 신전(121)

미화되지 않은 실물 같은 흉상: <베스파시아누스 황제>(70년경)(121)

인도 간다라 지방의 불상부조: <출가하는 고마타(석가모니)>(2세기)(124)

그리스 로마의 영향받은 인도의 조각미술: <석가모니 두상>(4-5세기경)(124)

유대교 율법은 우상숭배 거부로 형상제작이 금지되어 실물같지 않은 인물묘사의 성서이야기를 회화로 그림: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하는 모세>(245-256년경)(127)

6. 기로에 선 미술--5세기에서 13세기까지: 로마와 비잔틴

311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133)

바실리카(큰교회당)내에 우상적 조각상보다는 성경이야기를 상기시킬 회화작품 설치(133)

문맹자들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6세기말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교회당내의 회화 옹호(133)

동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을 거부하며 종교적 모든 형상에 반대(137)

성상파괴주의자 또는 우상파괴자로서 754년 이후 모든 종교미술도 금지(137)

동로마에서는 신성성의 전통을 전형적 엄격함으로 표현(138)

그림자로 얼굴과 손의 입체감(자연감)을 엄격하게 표현: <옥좌에 앉은 성모와 아기예수>(1280년경)

7. 동방의 미술--2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이슬람과 중국

중동과 북아프리카 스페인을 포함하는 이슬람에서도 우상은 금기시(144)

스페인의 아라베스크 장식 문양: <이슬람 궁전>(1377년)

중동의 <페르시아의 양탄자>(17세기)

중국에서 화가는 천한 직업이 아니라 시인과 동급(150)

서양사람들이 강조하는 운동이나 스포츠보다는 중국에서는 명상을 강조(150)

중세유럽의 기독교미술은 교리교육용이나 중국의 불교미술은 명상과 정신집중의 실천 도구(150)

곡선효과 강조: <세마리의 물고기>(1068-1085년경)

8. 혼돈기의 서양미술--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

유럽 북부에서 침략을 일으켰던 고트족 반달족 색슨족 데인족 바이킹족 등은 야만인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속세공과 목공예 미술품 제작(157)

이집트인들은 존재한다고 알았던 것을 그렸고 그리스인들은 본 것을 그린 반면에 중세유럽미술가중세 느낀 것을 그림에 표현(164)

자연이나 아름다운 것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을 전달(165)

봉건 영주들과 귀족들도 미술가들을 고용(167)

성과 같은 개인 저택의 장식미술은 작품이 유행에 뒤떨어지면 제거되어 교회 작품들이 주로 생존(167)

9. 전투적인 교회--12세기

1066년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이 영국을 점령(171)

노르만인들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기원한 수도원과 교회당을 건립하여 노르만 양식보급(171)

노르만 양식: 중후한 기둥이 받치는 둥근 아치, 장식도 창문도 없는 견고한 성채형 벽과 탑(173)

악의 공격에 대해서 피난처를 제공하며 암흑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의 의무를 관념화한 전투적 교회를 상징(173)

10. 교회의 승리--13세기

노르만(=로마네스크)양식은 사라지고 13세기부터는 새롭고 장엄한 고딕양식 등장(185)

고딕 성당을 대표하는 아치를 이용한 둥근 천장의 교회: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1163-1250년)(189)

13세기 북유럽 조각가들은 성당을 위한 작업, 북부 화가들은 필사본 책자의 삽화제작(195)

13세기 미술가에게 실물을 그린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196)

건본이나 표본을 보여주는 서적을 참조하여 회화작업(196)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베니스)는 비잔틴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영향 속에서 보수적 동방 양식 고수(198)

북유럽 대성당의 조각가들과 비잔틴으로부터 동시에 영향받은 이탈리아 화가 조토(201)

벽의 석고가 마르지 않고 아직 젖어있을 때 그린 그림인 프레스코 벽화로 조토는 북부 이탈리아 파도바의 성당벽에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생애를 표현(1302-1305)(201)

조토는 그림자로서 입체적 깊이감을 표현하여 고딕 조각가의 환조 같은 착각을 주는 회화 제작: <신앙>(1305년경)(201)

조토의 명성에서부터 미술가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시작(202)

피렌체(플로렌스)의 시인 단테도 <신곡>에서 조토를 언급(213)

조토시대부터 미술사란 미술가들의 역사(203)

11. 귀족과 시민--14세기

고딕양식이 처음 발전했던 12세기 유럽의 권력과 학문의 중심지는 수도원과 성(207)

14세기부터는 상업 중심지인 도시의 성장으로 시청청사 사무실 대학 궁전 다리 성문 등이 건축가의 과업(207)

개인저택의 예배실 안치용 귀금속이나 상아소품 등장(208)

조토의 미술회화 개념이 알프스 이북으로 전파(211)

성경 속 인물들을 묘사하다가 이젠 자연을 스케치하며 스케치북을 사용하여 동식물의 스

케치를 비축(220)

안토니오 피사넬로의 살아있는 동물 연구: <원숭이 습작>(1430년경)(221)

자연을 주제로 실물과 유사한 사실적인 그림과 초상미술의 발전(214)

유럽은 교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한 단위이므로 미술가들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소위 국제적 양식 출현(215)

일반인들도 화가의 기교와 세부묘사로 미술가들을 평가(221)

미술가들은 시각법칙을 개척하고 인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어 조각과 그림에 반영(221)

중세미술의 종말과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221)

12. 현실성의 극복--15세기 초

르네상스는 재생과 부활: 로마가 고트족과 반달족 같은 게르만 종족의 침입으로 붕괴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이탈리아인들의 묘사(223)

북쪽의 야만인들이 파괴한 영광스런 과거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이탈리아인들의 믿음(224)

반달족으로부터 반달리즘(파괴), 고트족으로 고딕미술(야만적)의 어원이 기원(223)

그러나, 실제로 고딕미술은 고트족 침입 700년후에 미술의 급속한 부활시대에 등장(223)

이탈리아인들은 당시 북쪽 미술의 성장과 개화를 인식하지 못함(223)

이탈리아는 중세기간동안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된 채로 이탈리아인 조토의 업적만을 혁신이라고 여김(223)

단테와 조토의 출생지인 상업도시 피렌체에서 새로운 르네상스 미술 등장(224)

필리포 브루넬레스키(1377-1466)의 르네상스 건축 창시: <피렌체 대성당의 돔>(1420-1436년경)(224)

원근법 발견: 수학적 법칙에 따른 먼 물체의 작아짐(224)

최초로 원근법을 적용한 작품: 마사초의 프레스코 벽화 <성 삼위일체, 성모, 성요한과 헌납자들>(1425-1428년)에서 인물상들은 조각상처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인물과 사건이 친근하게 접근됨(229)

피렌체에서 도나텔로(1386?-1466)도 큰 명성을 얻어 여러 곳을 여행하며 미술 부활의 시대를 개척(230)

새 미술의 정열은 현재 벨기에(당시 네덜란드)의 얀 반 에이크(1390?-1441)에게도 영감(235)

얀 반 에이크는 회화 기법을 개량한 유화의 발명자(235)

안료 가루를 달걀과 섞어 반죽으로 만드는 템페라 방식에서 서서히 마르는 기름을 쓰는 방법인 유화는 여유롭고 정확하게 그림을 제작하게 함(240)

유화는 투명하거나 반짝이는 광택의 색채로 정확하게 묘사 가능(240)

화가가 증인처럼 목격한 장면을 모두 반영하는 사진 같은 그림 가능: <아르놀피니의 약혼>(1434년, 얀 반 에이크 작)(240)

화가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시도(243)

13. 전통과 혁신 I --15세기 후반: 이탈리아

화가들과 후원자들은 성경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하기 시작(247)

1400년까지 고딕화가들과 조각가들은 전 유럽을 넘나들며 소위 국제양식을 공유하여 유럽 각지의 미술 수준과 목적은 매우 유사(247)

중세말기의 봉건 영주들의 성보다 시민 상인들의 도시들이 더 발전(247)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당시 활동하던] 직공이나 장인들처럼 미술가들도 길드(노동조합)를 조직하여 권리와 특권을 보호하고 판매시장을 확보(247)

길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른 지방에서 온 미술가들의 유입을 차단(248)

길드에 가입할 수 있는 미술가들의 수준은 높아야 함(248)

가장 유명한 미술가들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작업 가능(248)

15세기부터는 여러 길드 파벌로 분열하여 그림만으로 지역 식별 가능(248)

마사초는 둥글고 입체적인 그림 속 인물상들을 명암으로 힘있게 형상화(260)

피렌체 남쪽 지방도시 출신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1416?-1492):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꿈>에서 빛과 그림자로 깊은 밤의 신비스러운 분위기 창조(260)

미술은 더 이상 성경이야기를 전하는 수단이 아님(264)

예술의 힘을 이용하여 부와 사치를 화려하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등장(264)

삶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풍부하게 해주는 미술의 기능 부각(264)

14. 전통과 혁신 Ⅱ--15세기: 북유럽

브루넬레스키가 건축물에 고전적 모티브를 기반으로 르네상스 양식을 알렸음에도 다른 곳에서는 15세기내내 고딕양식을 발전(269)

15세기 북유럽은 반 에이크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원근법, 과학적 해부학, 로마유적 연구 등에서 소외(270)

15세기 중엽 독일에서 목판화에 기름과 검댕으로 된 인쇄잉크를 바르고, 그 위에 종이를 대고 찍어내는 목판화술 등장(281)

목판 그림 인쇄가 책 인쇄보다 수십년 앞섬(282)

목판화를 여러 개 모은 목판 인쇄본, 트럼프 카드, 신앙수련용 판화, 그림 설교책 등이 제작(282)

쿠텐베르그의 활자발명 이후엔 활자본문과 목판 삽화가 결합(282)

뷰린(조각칼)으로 동판을 긁어 표면에 생긴 선들 위에 물감이나 인쇄잉크를 바르고 닦아낸 후 종이에 누르면 동판화가 제작(282)

목판화보다 동판화는 더 풍부한 세부묘사와 미묘한 효과를 발생(283)

라인강 상류에 살았던 마르틴 손가우어(1453?-1491): <거룩한 밤>(1470-1473년경)에서 붓이나 물감, 유화매체 없이 일상적 사물의 재질과 표면을 표현(283)

목판술과 동판술은 전 유럽에 전파되어 미술의 아이디어와 구성을 빌려오는 견본책 등에 이용(285)

이탈리아 르네상스미술이 결국 북유럽의 중세 미술도 종결(285)

<<서양고전강독 4>>

13강 서양미술사 2

- 15. 조화와 달성--16세기 초: 토스카나와 로마
- 16. 빛과 색채--16세기 초: 베네치아와 북부 이탈리아
- 17. 새로운 지식의 확산--16세기 초: 독일과 네덜란드
- 18. 미술의 위기--16세기 후반: 유럽
- 19. 발전하는 시각 세계--17세기 전반기: 가톨릭 교회권의 유럽
- 20. 자연의 거울--17세기: 네덜란드
- 21. 권력과 영광의 예술 I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이탈리아
- 22. 권력과 영광의 예술 II--17세기 말과 18세기 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15. 조화와 달성--16세기 초: 토스카나와 로마

[토스카나 주의 수도가 피렌체(플로렌스)]

16세기초는 르네상스의 전성기로서 이탈리아 미술의 가장 위대한 미술(287)

원근법의 연구를 위해 수학을, 인체구조 탐구를 위해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287)

거장을 유치하기위해 도시들이 경쟁하고 미술가는 수락함으로서 군주에게 호의를 베푸는 시대(288)

미술가들은 마침내 자유인(288)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건물의 실용성과 상관없이 비례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균형의 장대함을 추구(288)

피렌체의 미술가 레오나르 다빈치(1452-1519):

[1]셰익스피어처럼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전혀 모르지만 과거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를 실험(293)

[2]30구이상의 시체로 <해부학 연구>(1510년), 자궁속의 태아, 파도, 조류, 곤충, 새, 비행기구, 바위, 구름, 대기, 초목, 음의 조화 등을 연구(293)

[3]위대한 미술가 및 음악가로도 추앙 받았으나 이단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저술을 출간하지 않음(294)

[4]자연에 대한 탐구는 미술에 대한 지식을 얻는 수단(294)

[5]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완의 상태로 방치(296)

[6]피렌체 밀라노 로마 파리 등으로 이주(296)

[7]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의 식당 벽화: <최후의 만찬>(1495-1498)

[8]피렌체 한 부인의 초상: <모나리자>(1520년경), 조롱하는 듯한 미소 속의 슬픔(300), 모호한 입과 눈, 섬세한 손과 소매, 환상적 배경의 풍경화 등은 끈질긴 자연관찰의 결과(302)

두번째 피렌체 미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1475-1564):

[1]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으로 그린 거대한 프레스코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1508-1512)(305)

[2]세부장면 스케치 후 실제로 벽면에 그리는데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예술적 노력 필요(305)

[3]이 천장화의 창세기 이야기 중 중심의 <아담의 창조>가 가장 유명

1504년 피렌체로 온 젊은 화가 **라파엘로** 알려진 라파엘로 산티(1483-1520)

[1]<대공의 성모>(1505년경)는 후대에 진정한 성모의 모습이라고 인정(313)

[2]미켈란젤로와는 다른 사교적인 성품

[3]서른 일곱번째 생일날에 사망

16. 빛과 색채--16세기 초: 베네치아와 북부 이탈리아

이탈리아 미술사에서 피렌체에 버금가는 베네치아(베니스)(325)

조반니 벨리니(1431?-1516): <성모와 성인들>(1505)에서 강렬하고 다채로운 색채와 황금 색벽으로서 초자연적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세계를 표현(326)

조르조네(1478?-1510): <폭풍우>는 아마도 영웅이 될 어떤 아기와 어머니가 황야에서 목 동을 만나고 뒷 배경으로는 번개의 섬뜩한 빛(329), 원근법에 맞먹는 빛과 색채의 새로운 영역 개척(331)

티치아노(1485?-1576): 권력자들이 초상화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334)

코레조라고 불린 안토니오 알레그리(1489?-1534): <거룩한 밤>(1530년경)에서 아기 예수 가 전하는 어둠 속의 빛의 기적을 표현(337), 빛의 효과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기술(명암법)(339)

17. 새로운 지식의 확산--16세기 초: 독일과 네덜란드

독일의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

[1]헝거리 출신의 금세공가의 아들(342)

[2]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교회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반영(342)

[3]<용과 싸우는 성 미가엘>(1498, 목판화): 요한 계시록의 무시무시한 환영을 표현(345)

미술의 위대한 시기였던 16세기 초의 네덜란드: 15세기의 얀 반 에이크와 같은 거장은 없음, 옛 것에 대한 집착과 새로운 것 사이의 애정에서 심한 갈등(356)

18. 미술의 위기--16세기 후반: 유럽

매너리즘(가식과 천박한 모방이란 뜻의 어원): 거장들의 미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일이 남아있는 지를 의문시하던 시기(361)

코레조의 제자 파르미자니노(1503-1540):

[1]<긴목의 마돈나>(1534-1540)는 화가의 죽음으로 미완성(364)

[2]백조처럼 긴목의 성모, 긴손 긴다리의 천사, 비쩍 마른 예언자, 괴상한 원주(367)

[3]자연스런 아름다움을 희생하며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모색한 최초의 현대미술(367)

틴토레토(본명 야코포 로부스티)는 <성 마르크의 유해발견>(1562년 경)에서 기묘한 극단적 빛과 어둠 속의 원경과 근경으로서 색채의 아름다움을 희생(368)

엘 그레코(본명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1541?-1614)도 틴토레토의 화법을 추구

북쪽의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미술가들은 종교개혁에 의해 더 큰 위기에 봉착, 신교도들은 구교의 우상숭배라며 그림과 조각상을 반대(374)

네덜란드에서는 신교 교회들이 반대하지 않는 주제를 찾아 의도적으로 개발한 그림 탄생(380): 일상생활을 묘사한 장르회화(풍속화, 장르genre란 종류 또는 분과를 의미)(381)

피터 브뤼헬(1525?-1569)의 <시골의 결혼 잔치>(1568년경): 농민들의 술잔치나 축제(381) 같은 하층민의 생활을 통해 인간의 허식과 어리석음을 묘사(382)

19. 발전하는 시각 세계--17세기 전반기: 가톨릭 교회권의 유럽

건축 양식의 변화: 로마네스크(노르만 양식)→고딕 양식→르네상스 양식→바로크(기괴함) 양식(387)

17세기 비평가들은 16세기 말의 미술가들을 매너리즘(가식과 천박한 모방)이라며 비판(387)

17세기 회화는 빛과 색의 강조와 함께 단순한 균형 대신 복잡한 구도 선호(390)

안니발레 카라치(1560-1609): 모든 거장들의 장점들을 모으려 했다고 평가받은 볼로냐 출신 화가(390)

귀도 레니(1575-1642)도 카라치 방식을 추구(394)

카라치와 레니는 자연을 이상화하고 미화한 신고전주의(혹은 아카데미한 방식)파를 이끔: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1594-1665), 클로드 로랭(1600-1682)에도 영향(395)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1573-1610):

[1]밀라노 근처 출신으로 아름다움과 전통을 타파하고 본 그대로의 진실을 추구한 자연주의자

[2]<의심하는 토마>(1602-1603년경): 예수 옆구리의 상처를 찔러보는 주름패인 노동자 같은 사도의 모습에서 아름다움보다 자연스러움을 충실하게 묘사(393)

20세기에 와서야 카라치와 카라바조의 진가를 인정(393)

이 시대부터 미술은 어떤 방식(양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작업(394)

30년 전쟁: 카톨릭 교회의 궁정들과 신교도의 신흥 산업도시들간의 충돌(401)

네덜란드의 양분: 카톨릭 스페인의 지배에 저항한 북부의 홀란트, 카톨릭 스페인과 동맹 관계인 남부의 플랑드르

페터 파울 루벤스(1577-1640)

[1]카라치적인 고전 신화에 기반한 감동적 제단화적인 구성과 카라바조적인 자연연구 모두를 추구(397)

[2]플랑드로 출신의 카톨릭 화가로서 보수 동맹을 위해 영국과 스페인을 화해시키는 등 정치외교적 임무도 수행

20. 자연의 거울--17세기: 네덜란드

네덜란드 북부의 신교상인들은 경건 근면 절약하면서 남쪽 궁정들의 허식을 거부(413)

카톨릭 국가들의 바로크 양식도 거부하고 수수하고 절제된 양식 선호(413)

신교가 승리하며 네덜란드의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17세기 중엽에 성공한 많은 상인들이 초상화를 원함(413)

초상화에 재능 없는 화가들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구매자들을 물색(416)

이런 현대적 구매 방식으로 인해 미술가들은 횡폭한 대중을 상대하기위해 중간상인(화상)

에 대리 구매를 의뢰(416)

경쟁이 치열해져 군소 화가들은 각자 특수분야를 전문적으로 그리기 시작(416)

물고기화, 전쟁화, 달빛 풍경화, 바다 풍경화 등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상을 제패하던 시대의 역사적 문헌(418)

당시 영국인들은 소박한 풍경을 한폭의 그림같다picturesque라고 표현(419)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지몬 데 불리헤르(1601-1653)의 <해풍에 흔들리는 네덜란드 군함과 수많은 범선들>, 얀 반 호이엔(1596-1656)의 <강변의 풍차>(419)

람브란트 반 레인(1606-1669)

[1]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420)

[2]레이덴의 제분업자의 아들로 출생하여 암스테르담에서 활동(420)

[3]<자화상>(1655-1658년경): 허영없는 살아있는 인간의 표정(420)

[4]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판화가로서도 거장

[5]부식동판화(에칭): 동판표면을 왁스로 덮고 바늘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산성용액 속에 넣으면 그린 부분이 부식되면서, 목판이나 동판보다 더 자유롭게 잉크로 찍어 낼 수 있음

[6]파산에 따른 개인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높은 명성을 유지

21. 권력과 영광의 예술 I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이탈리아

회반죽 세공과 대형 프레스코 벽화 기술로 18세기 이탈리아 미술가들은 뛰어난 실내장식가들(443)

베네치아 출신의 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1696-1770)의 <클레오파트라의 연회>(1750년경)는 베네치아 라비아궁의 프레스코 장식의 일부(443)

그러나 이탈리아 미술의 위대한 시대가 끝나는 중(444)

18세기초에는 풍경을 묘사한 유화와 동판화의 특수분야에서만 새로움들이 창조(444)

풍경화: 여행객들의 기념품(445)

22. 권력과 영광의 예술 Ⅱ--17세기 말과 18세기 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18세기 전반기의 거장은 앙투안 바토(1684-1721)(454)

[1]로코코Rococo라고 알려진 프랑스 귀족들의 환상적 취향 반영(454)

[2]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454)

[3]<공원의 연회>(1719년): 공원 소풍모습에서 아름다움의 덧없음을 의식

[4]37세의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요절

<<서양고전강독 4>>

14강 서양미술사 3

- 23. 이성의 시대--18세기: 영국과 프랑스
- 24. 전통의 단절--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 미국 및 프랑스
- 25. 끝없는 변혁--19세기
- 26. 새로운 규범을 찾아서--19세기 후반
- 27. 실험적 미술--20세기 전반기
- 28. 끝이 없는 이야기--모더니즘의 승리 / 또 다른 추세 변화 / 변모하는 과거

※ () 내의 표현은 책의 표현, 번호는 책 페이지 / [] 내의 표현은 강의자의 주석

23. 이성의 시대--18세기: 영국과 프랑스

1700년을 전후로 카톨릭 국가에서는 바로크 운동이 절정(457)

개신교국들에서는 바로크의 호사로움을 배격하고 고전에 충실(459)

끝없이 이어진 잘 다듬어진 생울타리와 작은 길을 가진 프랑스 베르사유 궁의 바로크식 정원이나 공원을 영국은 반대(460)

영국은 자연스런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풍경정원'을 개발(460)

영국 개신교(청교도)들이 가진 사치에 대한 적대의식이 미술에는 심각한 타격(461)

당대 영국의 화가들은 외면당하고 옛 거장들의 걸작품들만이 수집(461)

영국의 젊은 판화가 윌리엄 호가스(1697-1764): <탕아의 편력>(1736)에서 착한 일에 대한 보상과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의 청교도적인 교훈을 그림

조슈아 레이놀즈 경(1723-1792): 영국 상류사회를 만족시킬만한 그림 제작(464), 왕립미술원 초대 원장으로서 다른 지식인들과 동등한 환영 받음(465)

이성의 법칙을 갈망했던 18세기 영국 미술은 권력의 영광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초상화를 주로 제작(470)

건강이 좋지 못했던 토머스 게인즈버러(1727-1788): 지성적인척하지 않고 어두운 색조의 섬세하고 솔직한 틀에 박히지 않은 초상화 제작(468)

프랑스에서도 권력의 겉치레보다는 서민들의 초상미술에 서서히 새로운 관심(472)

24. 전통의 단절--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 미국 및 프랑스

아름다움이란?

자연주의(475): 자연을 능숙하게 묘사하는 것(475)

카라바조 [예수의 상처를 찔러보는 사도]

네델란드 화가들: 불리헤르 [해풍속의 범선], 반 호이엔 [강변의 풍차], 램브란트

게인즈버러 [어두운 초상화]

신고전주의 [아카데미적 전통], **이상주의(475):** 자연을 이상화하는 것(475)

라파엘로, 카라치 [이탈리아에서 거장들의 장점을 흡수], 레니 [카라치 학파에 스스로 가담], 레이놀즈 [영국 왕립미술 초대원장]

자연주의와 신고전주의(이상주의)는 여전히 많은 공통점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이성의 시대)에야 공통기반이 상실되며 미술가들은 양식을 의식(475)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은 자신의 저택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478)

고딕 복고, 그리스 복고 양식도 출현(477)

워싱턴 시는 그리스 복고 양식으로 설계(480)

그림은 도제식 교육에서 18세기부터는 왕실의 후원을 받는 아카데미에서 배워야할 과목(480)

파리 런던 등의 미술가들은 상류사회계를 대상으로 한 전시회를 위한 작품 제작(481)

전시회는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하며 가식적이고 멜로드라마적 주제에 요란한 색채와 큰 규모의 작품 위주(481)

전시회를 통해 미술가들의 명성이 갑자기 생기거나 소멸(481)

전시회용 아카데미 미술을 '관학적' 미술로 경멸하는 미술가들 출현(481)

신들의 사랑과 다툼, 로마영웅설화, 성경과 성자의 전설 등에서 프랑스 혁명 후 자유로운 주제(문학작품, 시사적 사건) 등으로 전통으로부터 이탈(481)

영국으로 온 미국 화가들이 특히 더 구속감 없이 역사적 사건에 관한 관심이 일어나 새로운 실험 시도(481)

미국인 존 싱글톤 코플리(1737-1815): <1641년에 다섯명의 탄핵된 의원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찰스 1세>에서 역사적 일화의 고증 노력(481)

프랑스 혁명 정부의 공식화가, 자코 루이 다비드(1748-1825): <암살당한 마라>(1793)에서 혁명지도자 마라가 반혁명파의 한 젊은 여자에 의해 목욕탕에서의 피살된 것을 순교자의 운명을 맞은 겸허한 인민의 친구 모습으로 묘사(481)

주제 선택의 자유를 가장 얻은 분야는 풍경화(490)

J. M. W. 터너(1775-1851)와 존 컨스터블(1776-1837) 레이놀즈[신고전주의]와 게인즈버러[자연주의]의 대조(490)

터너는 성공한 화가로서 전통의 문제에 집착: <눈보라 속의 증기선>(1842)에서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의 충격을 빛과 증기의 효과가 가지는 마술적인 힘으로 대담히 묘사(492)
[→모네의 인상주의에 영향]

컨스터블에게 전통은 장애물로서 진실만이 중요(494): 붓과 물감을 쓰는 시인이 되어 극적인 효과를 위해 성실하고 끈질기며 정직한 묘사를 탐구(497)

25. 끝없는 변혁--19세기

산업혁명은 장인에 의한 소규모 수공업 전통을 깨고 기계에 의한 대규모 생산을 초래(499)

도시의 건물들: 여러 양식들을 차용, 성당은 고딕,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는 바로크, 관공

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499)

런던 의사당: 1834년 화재 이후 르네상스 양식 전문가인 찰스 배리 경의 골격 설계와 고딕 전문가인 퓨진(1812-1852)의 내부장식으로 재탄생

전통의 단절로, 소재 주제 방식 등의 모든 결정을 화가가 함으로서, 화가와 대중간의 취향의 간극 발생으로 화가의 경제적 안정성 붕괴(501)

19세기부터 대중적 미술가와 고립을 자초하는 미술가 간의 간극 발생(501)

장인 기술의 쇠퇴와 전통과 단절된 새 중산[상인]계급의 등장으로 대중 예술 수준의 하락(501)

성공한 상인들이 보기에 미술가들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사기꾼, 미술가들은 이런 거만한 유산계급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걸 즐김(501)

대중의 저속한 취미에 영합하려는 미술가와 작품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천재라고 과장하는 미술가 모두 파멸(502)

그러나 표현 선택의 폭이 확장되고 후원자의 번덕으로부터 벗어난 미술은 사상처음으로 개성표현의 완벽한 수단(502)

소위 성공한 관전파 화가들과 사후에나 진가가 인정되는 이단자들 사이의 구별이 본격화(503)

19세기 당시엔 성공했던 관전파 작품들은 친숙하나 너무 진부하여 현재엔 관심 소멸(503)

19세기 미술의 역사는 용기있게 스스로 탐구하여 인습을 타파하고 새 미술의 가능성을 창조해낸 외로운 미술가들의 역사(503)

15세기 피렌체→17세기 로마→19세기는 파리의 몽마르트(503)

당시 미술 아카데미는 고상한 인물이 주제였고 노동자나 농민은 네덜란드 풍속화의 주제(507)

1848년 2월 혁명 시기에 컨스터블[자연주의자]의 지도하에 프랑스 화가들[장 프랑수와 밀레(1814-1875)]은 바르비종에서 새로운 시각을 개척(507)

<이삭줍는 사람들>에서 밀레는 세명의 농촌 아낙들의 진솔하게 일하는 모습을 아카데미 파의 영웅들보다 더 자연스러운 품위로 묘사(508)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는 1855년 개인전에서 이러한 운동에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는 뜻의 사실주의라는 명칭 부여(508)

사실주의realism: 평범한 효과를 거부하고 세계를 본 그대로 표현하여 인습을 경멸하고 오직 스스로의 예술적 양심만을 추구(508)

영국에서는 라파엘로가 진실을 희생하고 자연을 이상화 하였다고 믿고 그 이전의 순수 신앙시대로의 회귀를 추구했으나 역부족(511)

프랑스의 에두아르 마네(1832-1883): 옥외의 밝은 빛 아래에서는 그림자조차도 더 밝게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여(512), 부드러운 명암법을 포기하고 강하고 거친 대조를 추구(513)

마네는 <배에서 그림 그리는 모네>(1874)로 모네에 대한 우정을 표현(517)

가난하지만 고집 센 젊은이, 클로드 모네(1840-1926)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는 바로 그 현장에서 마무리 되어야한다고 믿음(517)

모네는 안이한 제작법을 거부하고 세부묘사보다는 빠른 붓질로 묘사(517)

터너의 <눈보라 속의 증기선>처럼 모네도 빛의 마술적인 힘을 묘사(519)

그러나 비평가들은 불완전한 마무리와 되는대로 그린듯한 모네의 제작방식을 비판(517)

모네의 <인상: 해돋이>(1874)를 한 비평가는 제목이 우습다며 인상주의자로 조롱(517)

인상주의는 한순간의 인상을 회화라고 부르기엔 불충분하다는 조롱에서 시작(519):

당시 신문기사: “오페라 하우스 화재 이래로 또 새로운 참사가 벌어졌으니 ... 대여섯명의 정신질환자들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웃음을 터트리고 있었다. 예술가인 양하는 이 작자들은 스스로를 전위파니 인상주의자니 떠돌고 있다. 대강 붓질해서 발라놓고는 정신병자들이 길바닥 돌들을 다이아몬드라고 우기는 것이다”(519)

<파리의 생라자르 역>(모네, 1877): 솟아오르는 연기 위로 흘러드는 빛의 효과를 표현, 그러나 아주 불성실한 작품으로 혹평 됨(519)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1841-1919): <‘물랭드라 길레트’의 무도회>(1876)에서 술렁이는 인파에 쏟아지는 햇빛의 효과를 연구, 마무리되지 않은 스케치라며 비웃음 받음, 그러나 세부까지 다 그렸다면 오히려 생동감 없이 진부 했었을 것(520)

인상주의자들은 어두운 그늘이 광선아래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윤곽선을 흐릿하게 표현하는 등 예술적 지혜를 발휘(520)

화가가 실제로 겪었던 시각적 경험을 관객에게 전달 해주는 것이 인상주의자들의 진정한 목표(522)

색조의 아름다운 조합, 색채와 형태들의 흥미로운 구성, 태양과 응달의 즐거운 조화를 추구(522)

품위있는 주제, 균형잡힌 구도, 정확한 소묘 등을 낱아빠진 허깨비로 취급(522)

인상주의자들의 관점은 곧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비웃었던 비평가들은 회복할 수 없는 위신의 상실(522)

휴대용 카메라와 스냅 사진의 발전은 미술가들을 새 영역의 탐구로 이끔(525)

18세기 일본의 채색 목판화는 하층민들의 우연하고 파격적인 장면을 묘사(525)

19세기에 이르러 이런 값싼 판화들은 포장지나 완충제로 사용되어 유럽으로 유입(525)

마네 주변의 화가들은 일본 판화들을 수집하다 유럽의 미술 인습을 깨닫게 됨(525)

일본 판화가 유럽 회화의 기본 규칙을 과감하게 무시한 점이 인상주의자들에게 충격(527)

인상주의는 부르주아의 편견과 인습에 대한 저항자로서의 새로운 태도 유지(530)

에드가 드가(1834-1917)의 <출연대기>(1879)는 발레리나의 휴식 자세를 아무런 이야기 없이 냉정한 객관성으로서 빛과 그늘, 운동감, 공간감을 표현(528)

프랑스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1840-1917): 마무리된 외관을 혐오하고 상상의 여지를 남김(530)

미국인 제임스 애벗 맥닐 휘슬러(1834-1903): 문학적 감상과 아카데미적 전통에 대한 무시로서 자신의 일본풍 야경화 <푸른색과 은색의 야상곡: 오래된 배터시 다리>(1872-1875)를 1877년에 이백기니의 가격으로 책정(533)

비평가 존 러스킨(1819-1900): "어떤 어릿 광대가 관객들의 얼굴에 물감 한병을 내던진 대가로 이백기니를 요구했다"(533)

휘슬러는 러스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서 예술적 감각만이 가치가 있다는 심미주의 운동을 주도(533)

26. 새로운 규범을 찾아서--19세기 후반

인상파 화가들은 시각적 인상들을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색채의 반사작용과 자유로운 붓놀림 효과를 실험(536), 빛 속에 확실한 윤곽이 없어지고 채색된 그림자가 등장(539)

그러나 인상주의자들에게서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 → 세잔: 균형과 질서(554), 반 고흐: 강렬한 정열(554), 고갱: 단순 솔직함(555)

세잔은 프랑스의 입체주의, 반 고흐는 독일의 표현주의, 고갱은 프리미티비즘[원시주의] 운동의 시조(555)

[이들은] 혁명가인 체 하지 않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포기(550)

절망적 고독 속에서 자신들이 이해되기를 기대하지 않은 채 작품활동(551)

폴 세잔(1839-1906):

[1]인상파화가들의 어수선함을 싫어하고 질서를 부여하여 명료함과 견실함을 추구(539)

[2]<벨뷰에서 본 생트 빅투아르산>(1885년경)에서 명료하고 견고한 화면구성에 깊이감과 거리감을 부여(539)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1]1853년 네덜란드 목사의 아들로 출생(544)

[2]밀레로부터 감명받아 화가가 됨(544)

[3]역시 가난했던 동생 테오가 마련해준 돈으로 파리를 떠나 1888년 남프랑스 행(544)

[4]작가로서의 사명감과 투쟁, 절망적 고독, 타인과 사귀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 속에서 1년여 만에 1889년 5월 정신병자 수용소 행(544)

[5]수용소에서도 그림을 그리다 1890년 7월 37세에 자살(546)

[6]정신적 절망 속에서 그려낸 마지막 3년간의 작품들이 후세에 불멸의 명성을 줌(546)

[7]그가 그렸던 해바라기, 빈의자, 사이프러스 나무, 초상화들은 오늘날 여기저기서 복제(546)

[8]일본 판화를 찬탄했던 고흐는 자신의 그림들도 그런 직접적이고 강렬한 효과를 지니

길 갈망(546)

[9]부자들을 만족시키는 예술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해줄 수 있는 소박한 예술을 갈망(546)

[10]자연을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리는 것 보다는 목적에 맞게 형태를 과정 변화(548)

폴 고갱(1848-1903):

[1]고흐의 겸손함이나 사명감없이 오만하고 야심만만(550)

[2]정신착란을 일으킨 고흐로부터 도망쳐 파리를 거쳐 타히티섬에 정착(550)

[3]문명을 거부하고 야만적인 색채와 소묘로서 때문지 않은 자연의 아이들을 묘사(551)

[4]<백일몽>(1897)은 토착민 장인들의 수법을 연구하여 원주민의 정신으로 사물을 보려는 노력, 윤곽을 단순화하고 강렬한 색채로서 자연의 어린이들이 지닌 순수한 강렬함을 묘사(551)

[5]유럽에서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난 후 고독과 절망 속에서 질병과 가난으로 사망(551)

스위스 화가 페르디난트 호들러(1853-1918)은 <툰 호수>(1905)에서 고향 풍경을 대담하게 단순화하여 포스터 같은 명료성(553)

일본미술의 수법이 광고미술에 적합하여 새로운 미술이 유럽에 탄생 → 포스터(553)

일본 판화로부터 영향받은 흑백판화가 유럽전역에서 명성 → 책 삽화 미술(554)

27. 실험적 미술--20세기 전반기

현대미술은 과거미술처럼 한 시대의 문제에 대한 반응(557)

20세기 건축은 장식의 편견에서 탈피하여 장식을 거부, 건축이 예술에 속한다는 관념도 탈피(557)

미국 건축가 로이드 라이트(1869-1959)

[1]주택에서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라 내부의 방(557)

[2]엄격한 좌우대칭, 소용돌이 무늬, 벽기둥 등 전통적 장식의 폐기(558)

[3]건축물은 거주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생명체처럼 발생하고 성장 → 유기적 건축(558)

[4]건축은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아름답게 보인다는 신념 → 건축의 기능주의(560)

미술

이집트인들은 머리 속에 알고있던 것들을 표현(561)

그리스 로마 미술은 도식적인 형태에 생명력을 불어넣음(561)

중세미술은 종교적 주제에 대한 도식적 표현(561)

중국에선 명상을 위한 도구(561)

르네상스 시대에야 자기가 본 것을 묘사(561)

인습: 실제로 본 것을 그리기보다는 배워서 아는 형태를 그리는 것(561)

인상주의: 인습을 타파하고 과학적 정확성으로 시각의 움직임을 표현(561)

인상주의로 인해 보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을 서로 확실히 분리시킬 수 없음을 인식(561)

감각적 인상에만 따라 수동적으로 그린다는 생각은 오류(561)

유럽미술의 전통 전체가 부정되는 위기 속에서 일본 판화의 도움 등장(562)

1차 세계대전 직전의 미술혁신운동: 흑인 조각에 대한 예찬, 강렬한 표현성, 명쾌한 구성, 솔직 단순한 기법

세잔의 구성 강조[→입체주의], 반 고흐의 표현성[→표현주의], 고갱의 단순성[→원시주의]은 미술혁신운동과 일맥상통(563)

20세기 미술은 독창성을 추구하며 전통과 단절하려는 끊임없는 실험(563)

표현주의expressionism

만화caricature는 항상 표현주의적(563)

인간의 고통, 가난, 폭력, 걱정을 예민하게 표현(564)

아름다움을 고집하는 것은 정직하기를 거부하는 태도(564)

삭막한 현실을 직시하고 불우하고 추한 인간들에 대한 연민을 표현(564)

예쁘장하고 매끈한 냄새를 풍기는 부르주아의 현실적 가상적 자기만족에 거부(564)

고전주의적 미술가들에게 표현주의는 불성실하고 위선적(564)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1863-1944):

[1]<비명>(1895)에서 정신적 동요가 변화시키는 감각적 인상을 표현

[2]비명치는 사람의 고통과 흥분을 만화 같이 왜곡된 얼굴로 표현(564)

독일 미술가 케테 콜비츠(1867-1945):

[1]가난하고 학대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566)

[2]<궁핍>(1893-1901)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통해 혁명의 존엄성을 표현(밀레는 이삭
줍는 사람들에서 노동의 존엄성을 표현)(566)

독일의 표현주의는 1933년 나치 집권 후 금지(567)

표현주의 이론: 미술은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색채와 선을 선택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
(567)

그렇다면, 주제를 모두 없애고 색조와 형태의 효과에만 의존하면 미술이 더욱 순수해질
것(569)

추상미술

표현주의로부터 독일에서 출현

러시아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1866-1944):

[1]진보와 과학의 가치를 배척한 신비주의자(569)

[2]순수한 정신성을 지닌 참신한 미술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재건하려는 시도(569)

[3]순수색의 심리적 효과를 강조하여 색채로 표현된 음악을 <카자크인들>(1910-1911)에
서 시도(569)

네델란드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1872-1944):

[1]<빨강 검정 파랑 노랑 회색의 구성>(1920)에서 직선과 원색의 그림(581)

[2]우주의 객관적 법칙을 느끼게 하는 명료하고 절도 있는 회화(581)

[3]변화하는 형태들 속에서 불변하는 실재의 규명 시도(581)

입체주의cubism

순간적인 인상을 어지럽고 빛나는 색채로 그린 인상주의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570)

대상을 다른 형태로 재현하여 단순화된 아름다운 형태의 질서와 구성을 탐구(570)

그러나 평면적 형태와 입체성 사이에서 갈등(570)

입체감을 명암으로 표현했던 오랜 미술의 관례를 탈피하려는 시도(570)

이미 반 고흐와 고갱을 거치며 세련된 미술은 버려지고 솔직하고 단도직입적 형태와 색채 등장(570), 섬세한 묘사도 거부하고 강렬한 색채와 대담하고 야만적인 조화의 추구(571)

스페인 출신의 파블로 피카소(1881-1973)

[1]데생 교사의 아들로 출생하여 19세에 파리에 정착(573)

[2]이전 화가들의 형태적 평면성을 피하고 사물을 단순화하면서 입체감과 깊이감을 표현(573)

[3]<바이올린과 포도>(1812년)에서 마음의 눈으로 여러각도에서 본 바이올린의 뒤죽박죽된 형상들을 구 원주 원통들로 표현(573)

[4][명암이 아닌 방법으로] 2차원 평면에 3차원의 깊이감을 재현하는 새로운 효과 창출(574)

미국 출신 조각가 알렉산더 콜더(1898-1976):

[1]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균형을 잡아주는 신비스러운 힘에 의해 결합되었다는 믿음(583)

[2]우주의 수학적 법칙을 보여주는 미술을 갈망(583)

[3]움직이는 조각, 모빌의 창조

조각가 헨리 무어(1898-1986):

<기대누운 인물>(1938년)에서 돌을 사용하여 여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 인물의 형태를 암시해주면 그 방향으로 작업하여 여인을 암시해주는 돌을 만들려고 시도(584)

앙리 루소(1844-1910)

[1]화가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은 백해무익함을 실증한 아마추어 화가(586)

[2]정확한 소묘나 인상주의 기법 등은 전혀 모르던 파리 교외의 세관 관리(586)

[3]<조제프 브뤼머의 초상>(1909년)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색채와 명확한 윤곽으로서 힘차고 솔직하게 표현(586)

루소처럼 독학으로 터득한 소박한 방식에 감탄한 다른 화가들은 표현주의나 입체주의 이론을 버리고 명확하고 솔직하게 그리기 시작(586)

현실적이고 진솔하게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표현하기 시작(586)

러시아 유대인 마을에서 1차세계대전 직전 파리로 이주해온 **마르크 샤갈**(1887-1985): <첼로 연주자>(1939년)에서 악기와 한 몸이 되어있는 음악가를 통해 어린이 추억 속의 순진한 경이감을 표현(586)

초현실주의

벨기에 화가 르네 마그리트(1898-1967):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도>(1928년)에서 화가 본인은 누드를 그리려 하지만 현실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어 가는 과정(590)

현실 그 자체보다 더 현실적인 것을 창조하려는 열망(590)

숨어있는 유아성과 야만성에 의해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고한 프로이드의 주장처럼 예술은 이성에 의해서 생산될 수 없다는 자각(591)

이성이 과학을 가능케하나 비이성만이 예술을 가능케한다는 자각(592)

꿈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실험(592)

미국서 활동한 스페인 출신 화가 살바도르 달리(1904-1989)

[1]꿈의 세계에서의 혼돈을 모방(592)

[2]<해변가에 나타난 얼굴과 과일 그릇의 환영>(1938년)에서 터널이 뚫린 배경의 산이 동시에 개의 얼굴이 되면서 소녀의 얼굴, 해변, 밧줄 등으로 이루어진 괴이한 환영을 표현(594)

[3]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재현하는데 만족하지 않은 20세기 화가들 중 하나(594)

[4]한가지 형태로 동시에 여러가지 사물을 표현하여 색채나 형태의 다양한 의미에 관심(594)

28. 끝이 없는 이야기--모더니즘의 승리 / 또 다른 추세 변화 / 변모하는 과거

쿠르트 슈비터스(1887-1948): <보이지 않는 잉크>(1947년)에서 버려진 버스표, 신문지, 누더기 조각을 붙여 안료와 캔버스의 사용을 거부하는 극단적 예술운동 전개 → 다다 Dada 그룹(600)

미국의 잭슨 폴록(1912-1956):

[1]물감을 붓거나 뿌려서 완성한 <작품 No. 31>(1950년)(602)

[2]액션 페인팅 즉 추상표현주의 양식의 주창자(602)

[3]중국의 서예처럼 재빨리 그려내며 선불교적 신비주의로부터 영향 받음(602)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응용미술 혹은 상업미술 운동의 출현: 팝아트 운동(608)

1975년에 건축가 찰스 젠크스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탈근대주의]의 소개(618)

옷과 장식에 유행이 있듯 미술에도 취향의 변화가 존재(625)

많은 대가들과 양식들이 당대의 박식한 비평가들의 비난의 대상(625)

그러나 미술적 가치가 전적으로 상대적은 아님(625)

그러기에 현재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작품이나 양식이라도 객관적 장점을 찾는데 노력해야함(625)

개인적 취향과 상관없이 뛰어난 미술작품들은 여전히 식별 가능(625)

과거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과 관념도 당연히 수정할 필요, 그것이 과거를 공부하는 기쁨(637)